

40th History of KDA

1	9	6	8
2	0	0	8

제2편

위원회와 지회의 역할 1968~2008

1장. 위원회

1. 학술위원회
2. 간행위원회
3. 식품영양위원회
4. 약제 및 보험법제위원회
5. 교육위원회
6. 교육자관리위원회
7. 연구위원회
8. 수련위원회
9. 홍보위원회
10. 국제협력위원회
11. 진단소위원회
12. 치료소위원회
13. 역학소위원회
14. 인터넷관리소위원회
15. 캠프소위원회

2장. 지회

1. 영남지회
2. 호남지회
3. 충청지회
4. 경인지회

1. 학술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1) 설립에서 현재까지

1968년 학회 창립 당시에는 학술위원회라는 조직을 설치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학술부장이 담당 업무를 맡고 있었다. 초대 학술부장으로서는 고평욱 회원이 선임되었다.

제1차 학술대회는 학회 창립 후 2년이 지난 1970년 6월 13일 개최되어 국내에 당뇨병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다. 1981년에는 국제 교류의 포문을 열게 된다. 제1차 한일당뇨병심포지엄이 1981년 10월 31일~11월 1일 서울에서 열린 것이다. 또한 1987년과 1988년 서울과 프랑스에서 각각 한불당뇨병심포지엄을 열어 국제적인 학술교류 활동을 하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당뇨병에 관심을 갖는 의욕과 실력있는 젊은 회원들의 수가 늘고 학회의 학술 활동 또한 눈에 띄게 성장하면서 매년 1 회씩 거행하던 학술대회만으로는 그 왕성한 학문적 생산량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 1985년부터는 학술대회를 춘계와 추계 2차에 걸쳐 실시하기로 하여 1985년 3월 11일 제1차 춘계학술대회가 열렸다.

1992년 드디어 학술위원회가 조직을 갖춰, 위원장에 손호영 회원이, 간사에 임승길 회원이 선임되었다. 2008년 현재 이기업 학술위원회 이사와 박철영 간사가 학술위원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2) 구성목적

학술위원회는 대한당뇨병학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회원들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는 학회 정회원 중 이사장이 선임한다. 위원은 이사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위촉하며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이사는 위원 중 1명의 간사를 지명하며 필요시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전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사업

- 매년 춘계와 추계 학술대회 개최
- 한일당뇨병심포지엄 국내 개최
- 기타 학회에서 의뢰된 사업

1968년 10월 4일 학회 창립 후 1970년 6월 13일 제1차 학술대회를 개최한 이래 1971년 제2차 및 1972년 제3차 학술대회까지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으나, 이후 1978년 제6차 학술대회까지는 여러 가지의 제한된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매 2년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왔다. 그러나 1979년 이후부터는 주위 여건의 향상과 참여 회원수의 증가 및 연구 발표 논문수의 신장으로 다시 매년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85년부터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회원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아울러 연구 발표 논문의 비약적인 질적, 양적인 향상으로 정기 학술대회를 매년 춘계 및 추계학술대회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하여 오고 있다.

학술대회는 1970년 제1차 대회 18편 구연으로 시작하여 최근에는 123편이 발표되는 등 많은 발전이 있었다. 제1차 대회의 참석자 수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1991년 6차 대회 201명에서 현재 1,300~1,700여명 정도의 회원이 참가하는 큰 학술모임으로 발전하여 국내에서 가장 많은 회원 수와 짜임새 있는 학술대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의사들만의 발표에 국한되었던 내용들도 의사뿐 아니라 기초의학자, 간호사, 영양사 등 당뇨병과 관련된 많은 분야에서 참가, 발표하는 등 변화, 발전되었다. 또한 매년 국내 석학뿐 아니라 국외의 유명한 석학들이 학술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학술대회의 주된 구성내용은 1970년 제1차 학술대회부터 1983년 제10차 학술대회까지는 연구연제 발표와 토의 및 일정 주제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였으며, 1984년 제11차 학술대회부터는 특강 및 초청강연 시간을 신설 추가했고 또 1986년 제13차 학술대회부터는 일반 개원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강좌를 다시 추가 신설하였다.

학술대회 개최시간은 1985년 제12차 학술대회까지는



2006년 제19차 춘계학술대회. 학술위원회는 대한당뇨병학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회원들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대체로 오후 한나절 개최하여 왔으나 1986년 제13차 추계학술대회부터는 추계에 한하여 지속적인 회원수의 증가와 연구 발표논문 편수의 증가 및 연수강좌의 신설로 학술대회 개최시간을 종래의 한나절에서 하루로 연장하고 학회 장소도 두 곳으로 나누어 개최하였다. 1991년부터는 춘계 학술대회를 서울, 추계학술대회를 지방으로 바꾸어 진행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다시 춘계학술대회를 지방, 추계학술대회를 서울에서 열어 결실의 계절에 많은 연제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5년 제9차 춘계학술대회부터는 춘계학술대회에 한하여 회원수의 증가와 연구 발표논문 편수의 증가로 학술대회 개최시간을 종래의 하루에서 이틀로 연장하였다. 2003년 제16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처음으로 참가 회원이 1,000명을 넘어섰다. 그래서 2004년 제17차 춘계학술대회부터는 기존 이틀에서 사흘로 연장하였고, 추계학술대회도 제30차 추계학술대회부터 기존 하루에서 이틀로 연장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추계학술대회도 사흘로 연장되었다. 2005년 제18차 춘계학술대회에는 1,399명이 참가하였고, 2007년 제20차 춘계학술대회는 1,634명이 등록하여 해마다 참여인원이 많아지고 있다.

국제 사회에 발맞춰서 2006년 영어 구연 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해외 연자가 참석한 학회는 2007년 제20차 춘계학술대회로 19명의 해외 연자가 참석하였다. 또한 2007년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아시아 지역



2008년 제21차 춘계학술대회. 김신곤 회원(고려의대)이 'new insights into lipid management in DM patients, based on ADA guideline'을 강연하고 있다. 2008년부터 춘계학술대회는 지방에서, 추계학술대회는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1985년 제3차 한일당뇨병심포지엄. 1981년 시작된 한일당뇨병심포지엄으로 대한당뇨병학회는 국제 교류의 포문을 열었다.



2007년 11월 24일 Seoul Diabetes Forum을 Diabetes in Asia - Epidemiology and Newstep for Management With Incretin in Asia를 주제로 개최하였다.



대한당뇨병학회 학술위원회의 전망은 밝다. 당뇨병의 유병률 증가와 사회 및 정부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앞으로는 더욱 변화, 발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에게 Travel grant를 공모하여 4개국(인도네시아,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에서 10명이 참가하여 대한당뇨병학회가 명실상부한 국제적 학회로 발돋움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2008년부터는 학술대회의 다양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초, 임상,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형식으로 바꾸었다. 기존 기초 위주의 어렵고 무거운 주제가 많았던 것을 탈피해 참가자의 흥미에 맞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기초 연구 주제는 연구위원회와 연계하여 심층적인 방법으로 정기 학술대회와는 다른 시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의 연구위원회 모임을 보강하여 심층 주제를 설정하여 관련된 연구자들의 참석을 유도하고 연구자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다.

한일당뇨병심포지엄의 경우에는 1981년 10월 우리나라에서 시작하여 2년마다 한국과 일본이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 1차 대회 연재 수 27편에서 현재는 100편이 넘는 연재를 다루고 있어, 학문적 수준 및 다양성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이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 및 일본 연구자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 학문적 발전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2009년 제주에서 제15차 심포지엄이 열릴 예정이다

한일당뇨병심포지엄의 경우 제1차 대회가 1987년 서울에서, 제 2차 한일당뇨병심포지엄이 1988년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아쉽게도 이 대회는 두 번으로 그치고 말았다.

한편, 1987년 10월 22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1차 IDF-WPR 대회 이후 1993년 4월 12~13일 서울에서 제2차 IDF-WPR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 국내 42편, 국외 54편 등 총 96편의 연재가 발표되었다.

2007년 11월24일에는 Seoul Diabetes Forum을 Diabetes in Asia - Epidemiology and Newstep for Management with Incretin in Asia를 주제로 개최하여 11개국(한국포함)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2008년 3월 뉴질랜드 Wellington에서 열린 제7차 IDF-WPR 대회에서 제8차 2010년 IDF-WPR 대회 개최지로 대한민국의 부산이 결정되어 수천 명의 당뇨병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4) 전망

대한당뇨병학회 학술위원회의 전망은 밝다. 당뇨병의 유병률 증가와 사회 및 정부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앞으로는 더욱 변화, 발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인 요구와 회원들의 관심을 아울러 학술대회 주제를 선정하고 토의의 장을 만들어, 당뇨병이 완치가 가능한 그 때가 올 때까지 국내 당뇨병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IDF-WPR 대회를 거점으로 IDF 대회의 2013년 또는 2017년 개최에 도전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

상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하리라 기대한다.

학술위원회 역대 임원

	활동시기	위원장	간사
1~2대	1968-1972	고광옥*	
3~4대	1973-1976	고윤웅*	
5~6대	1977-1979	최영길*	
7~8대	1980-1983	허갑범*	
9~10대	1984-1986	이광우*	
11~12대	1987-1991	이현철*	
13~14대	1992-1995	손호영	임승길
15~16대**	1996~1999	김광원	이문규
17대~18대	2000~2003	이현철	윤진호
19대	2004~2005	최동섭	박경수
20대	2006~2007	박성우	박중열
21대	2008~2009	이기업	박철영

*1~12대 학술부장, ** 15~16대 부위원장 김보완 정민영
(작성 : 학술위원회 이사 이기업, 간사 박철영)

2. 간행위원회 (Committee of Publication)

1) 설립에서 현재까지

1982년 간행위원회가 설립되기 전 대한당뇨병학회는 이미 학회지 『당뇨병』을 발간하고 있었다. 학회지 창간호는 김응진 초대 회장을 발행인으로, 고광옥 학술부장을 편집인으로 하여 1972년 3월 1일 발행되었다. 이로부터 1983년까지는 2년에 1권씩 발간되었다.

1982년 간행위원회가 설치되어 김광원 회원을 위원장(제1대, 1982~1986)으로, 김성연, 김진우, 김태화, 손호영, 이현철, 최동섭 회원이 간행위원으로 임직하였다. 제2대 신순현 위원장(1987~1990), 제3대 손호영 위원장(1991), 제4~5대 김광원 위원장(1992~1995), 제6~7대 최동섭 위원장(1996~1999), 제8대 김영설 이사(2000~2001), 제9대 김태화 이사(2002~2003), 제10대 박성우 이사(2004~2005), 제11대 이기업 이사(2006~2007)에 이어 제12대 손현식 이사가 현재 간행위원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간행위원회는 학회지를 1984년 1회 발행한 이후 1985년부터 1년에 2호씩 발행하다가 1992년부터는 년 4회를 발행하였다. 이어 1999년부터 1년에 6호씩 발행하였고, 1999년 1월 1일에는 『당뇨병』지 투고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000년 『당뇨병』 표지를 시대감각에 맞추어



학회지 『당뇨병』은 1982년 창간호가 발행된 이래 현재까지 꾸준히 발행되어 대한당뇨병학회의 학술진흥에 기여하고 있다. 사진은 학회지 표지 변천사.

교체하였다.

2000년부터 학술지 평가신청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여,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에 등재되었다. 이후 등재학술지로 되기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평가를 계속 받았으며 2006년도에 이르러 『당뇨병』지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가 되었다.

2004년에 11월 24일 『당뇨병』지 투고 규정을 개정하고, 논문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5~7개의 분야를 나누어 전문심사위원 중심의 논문심사를 시작하였다. 같은 해 대한당뇨병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논문 및 초록 투고를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하여 2005년 9월부터 online submission을 시작하였다. 2005년 29권 1호부터 학회지 크기를 A4 크기로 변경하고 기존 짝수 달 발간에서 홀수 달 발간으로 변경하였다.

2008년부터 KoreaMed에서 『당뇨병』지의 논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2008년 32권 1호부터는 Medline 등재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당뇨병』지의 영문명을 기존의 “The Journal of the Korean Diabetes”에서 “Korean Diabetes Journal(약명 Korean Diabetes J)”로, ISSN 번호를 1976-9180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당뇨병』지 첫 페이지의 개요(Aims and Scope)를 국·영문 두 가지로 게재하기로 하고, 학회지 크기를 21×28cm로, 표지 색상을 변경하고 다시 홀수 달 발간에서 짝수 달 발간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간행위원회는 또 하나의 정기간행사업으로 2000년 『임상당뇨병』지를 창간하였다. 『임상당뇨병』지는 당뇨병 환자를 진료, 교육, 관리하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임상경험과 지식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당뇨병 관리에 많은 도움을 얻고자 창간하였으며, 2001년부터 년 4회 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간행위원회는 1992년 11월 2일 『당뇨병학』 교과서 제1판을 발행하였고, 1998년 5월 8일에 제2판을, 2005년 7월 15일에 제3판을 발행하였다. 2006년 3월에는 『Pickup's Handbook of Diabetes』(3판)을 완역하여 『픽업의 핵심 당뇨병학』을 발간하였다.

2) 구성목적

간행위원회는 대한당뇨병학회의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심사, 편집 및 발행을 위해 설치되었다. 학회지에 당뇨병의 역학, 병인, 합병증, 치료 및 대사에 관한 임상 또는 기초 연구를 다룬 논문을 게재하여 발간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은 물론 국제 학계와의 최신 학술 정보 교류를 통해, 당뇨병의 치료, 교육 및 당뇨병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3) 간행위원회 사업

간행위원회에서는 상기 구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



간행위원회는 1992년 11월 2일 『당뇨병학』 교과서 제1판을 발행하였고, 1998년 5월 8일에 제2판을, 2005년 7월 15일에 제3판을 발행하였다.

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학회 학술지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 『당뇨병』 년 6회 발행
- 『임상당뇨병』 년 4회 발행
- 당뇨병 전문 도서의 발간
- Korea Medline에 학회지 논문 수록
- 우수 논문의 추천
- 학회지 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
- 기타 학회에서 의뢰된 사업

4) 전망

당뇨병학은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당뇨병과 관련된 새로운 질환 군이 속속 등장하고 병태생리가 밝혀지고 있다. 또한 대규모의 임상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증거위주의 새로운 치료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고 새로운 당뇨병치료제들이 등장하고 있어, 당뇨병 환자를 진료, 교육, 관리하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에게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학술지 및 전문 도서를 발간하는 간행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간행위원회는 향후 학술지 내용의 질적 및 양적 향상을 통해 당뇨병학과 관련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학회지의 Medline 및 SCI 등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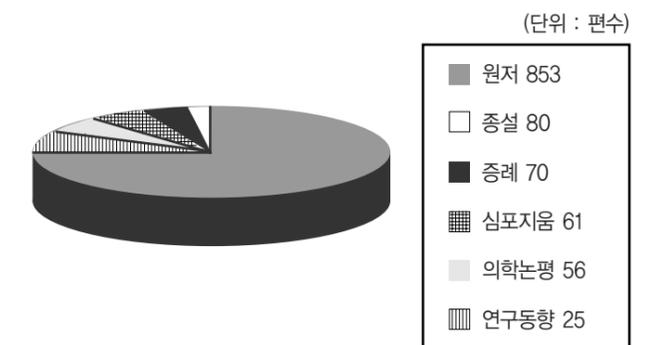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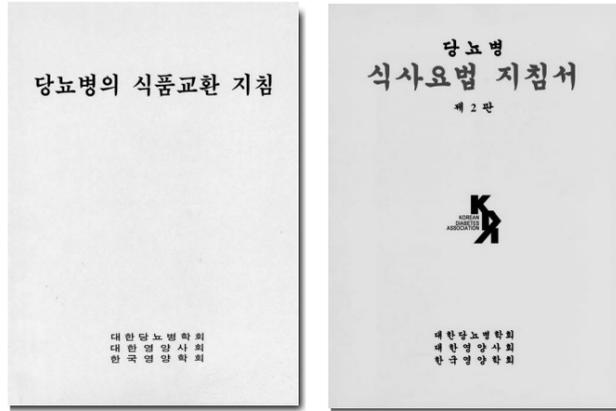
1999년 간행위원회 회의 기념촬영.

역대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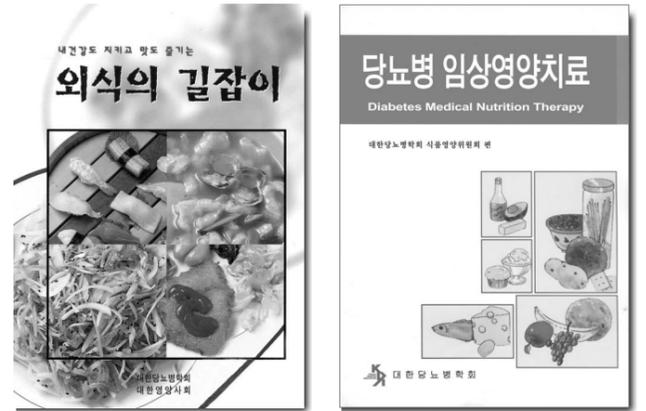
	활동시기	위원장	간사
1대	1982~1986	김광원	
2대	1987~1990	신순현	
3대	1991	손호영	
4대	1992~1993	김광원	이기업
5대	1994~1995	김광원	이문규
6대	1996~1997	최동섭	신찬수
7대	1998~1999	최동섭	김두만
8대	2000~2001	김영설	안규정
9대	2002~2003	김태화	고경수
10대	2004~2005	박성우	손현식
11대	2006~2007	이기업	손현식
12대	2008~2009	손현식	손태서

당뇨병학회지 학술 논문 수(1972년 ~ 2007년)





「당뇨병의 식품교환 지침」 1판과 2판. 식품 교환 단위가 고르지 못해 겪는 환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식품영양위원회는 창립 후 첫 사업으로 식품교환표를 작성하고 대한영양사회, 한국영양학회와 함께 식품교환 지침을 만들었다.



식품영양위원회는 1999년 11월 7일 당뇨병 환자와 일반인을 위한 외식지침서 『외식의 길잡이』를 발간했다.

식품영양위원회는 2003년 「당뇨병 임상영양치료」를 발간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3. 식품영양위원회 (Committee of Food and Nutrition)

1) 설립에서 현재까지

식품영양위원회는 당뇨병환자의 표준화된 식단 작성을 위해 1987년 1월 23일 제1차 평의회 결의에 따라 설치되어 활동을 개시했으며, 초대 위원장에 이흥규 회원이 임명되었다. 식품영양위원회가 설립된 것은 1979년 12월 대한당뇨병학회 총회 시절부터 논의되어 오던 당뇨병 식이요법의 단일화 필요성이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증대하였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당뇨병 하면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한데 식사, 영양관리에 있어 식품교환 단위가 고르지 못해 환자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초대위원은 김영설, 문언수, 차봉연, 이흥규, 이현철, 유형준, 백희영, 이일하, 박영희, 엄영람, 이현숙, 조영연으로, 의학계, 영양학계, 영양사계에서 참여하였다.

식품영양위원회는 1987년 당뇨병 식사요법 심포지엄 및 워크숍 등의 준비를 통해 1988년 『당뇨병의 식품교환 지침』을 발간하였고 최동섭 위원장 시기인 1995년 개정판 『당뇨병 식사요법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이현철 위원장 시기인 1999년에는 당뇨병환자들과 일반인들을 위한 외식 지침서인 『외식의 길잡이』를 발간했고, 김용성 위원장 시기인 2003년에는 『당뇨병 임상영양치료』를 발간하였다.

이후 식품영양위원회는 당뇨병의 식사요법 교육 내용의 표준화 작업, 식품교환표 개정 작업 등을 꾸준히 벌여오고 있다.

2008년 현재 식품영양위원회는 장학철 이사와 임수 및 조재원 간사가 맡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구성목적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식품 및 영양에 대한 제반 연구, 교육 및 실천을 위해 구성

3) 사업

- 한국인의 당뇨병 관리에 적당한 식사요법의 개발 및 표준화 사업
- 식사요법의 연구와 교육의 지원
- 식사요법 보급을 위한 워크숍개최 및 도서발간
- 표준화된 식사요법의 보완 및 수정
- 표준화된 식사요법에 따른 실행
- 당뇨병치료에 이용되는 각종식품의개발 및 평가에 대한 사업
- 기타 학회에서 의뢰된 사업

식품영양위원회는 1987년 2월 2일 첫 회의를 열고 앞

으로 해야 할 주요 활동 내용을 결정했는데, 위원회의 규정 제정과 식사요법의 원칙과 식품교환표의 작성, 우리나라 식사요법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 외국 식사요법의 이론과 실제 고찰, 식품군의 내용 및 순서 결정 등이 그것이었다.

이후 11차례의 회의를 거쳐 식품영양위원회는 식품군 재분류 및 계량법 개발의 필요성, 탄수화물 분배에 대한 재고, 스낵과 외식요리에 대한 영양 분석 및 지도 필요성 등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식품군의 순서를 검토하여 제1군 곡류군, 제2군 육류군, 제3군 채소군, 제4군 유지군, 제5군 우유군, 제6군 과일군 등으로 재배열하기로 했다. 그 결과 한국형 식품교환표가 설계되기에 이르렀다.

식품영양위원회는 대한영양사회 및 한국영양학회와 공동으로 그 동안 식사요법 체계에 대해 검토했던 사안들을 배경으로 대한당뇨병학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987년 9월 12일 신라호텔에서 심포지엄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또 9월 17일 열린 제11차 회의는 심포지엄 등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종합하여 한국인 당뇨병 치료를 위한 식품교환지침의 뼈대를 완성하기에 이르렀으며, 이 내용을 소책자로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소책자 제작 실무는 당시 신순현 총무와 유형준 위원 등에게 위임되었다.

1987년 11월 7일 열린 제14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유형준 회원은 「당뇨병 식사요법을 위한 식품교환체계」 연제를 발표했는데, 이 발표에는 그 동안 이루어졌던 식품영양위원회의 주요 성과가 그대로 반영돼 있었다.

“본 식품교환체계를 설정함에 있어 다음의 기본 원칙에 의거하였다. 첫째 간편하고 교육하기 쉬워야 하며, 둘째 환자가 실천 가능하게 한국인의 식습관에 맞아야 하며, 셋째 영양학적으로 올바르며, 넷째 각 개인의 식생활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다섯째 외식 등에 적용할 수 있고, 여섯째 다양한 여러 형태의 당뇨병에 공통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고려하여 식품군의 배열은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과일군의 순으로 하였다.

3대 영양소의 배분은 탄수화물 55~60%, 지방 20~25%, 단백질 15~20%(1.2g/kg/day)로 정하고 교육의 측면에서 탄수화물 60%, 지방 20%, 단백질 20%로 설명하기로 하였다. 단, 지방의 배분에 있어선 칼로리의 증감(1일 1300kcal 이하이거나 2000kcal 이상)에 따라 그 배분을 조절하도록 하였다.”

이듬해인 1988년 4월 8일 이 성과가 구체적으로 담긴 『당뇨병의 식품교환 지침』이 발간되어 제4차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배포됐다. 이 책자는 대한당뇨병학회와 대한영양사회, 한국영양학회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펴낸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었다.

1992년 5월 26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식품영양위원회에서는 「당뇨병의 식품교환 지침」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



2006년 제19차 춘계학술대회 때 “당뇨병의 임상영양관리”를 주제로 열린 식품영양위원회 심포지엄에서 임재연 회원(인하대 식품영양학과)이 ‘당뇨병환자의 영양조사 방법론’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2008년 제21차 춘계학술대회 식품영양위원회 심포지엄, “식품교환표 활용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임정현 회원(서울의대)이 ‘다른 나라의 당뇨병 영양교육 및 식품교환표의 활용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의가 제기됐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각 식품군에 가공식품을 비롯한 더 많은 식품을 추가시켜야 하고, 식생활 형태가 바뀔에 따라 외식 식사나 일품요리가 반영되어야 하며, 합병증이 있는 당뇨병 환자를 위한 식품교환표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된 것이다.

1993년 1월 28일 식품영양위원회는 식품교환지침서 개정안을 주제로 열린 가운데 식품교환지침서를 개정할 때 일선 영양사들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각 병원 영양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후 당뇨병 교육담당 영양사들에 대한 식품교환지침서 개정 설문조사와 더불어 외식의 열량과 총열량 계산법, 3대 영양소의 배분,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성 신증, 고지혈증이 있을 때의 식사변경, 이상체중 구하는 법 등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이런 논의 과정을 배경으로 당뇨병 식품교환지침 워크샵이 1994년 12월 17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알렌관에서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워크샵에서는 고려의대 내과 최동섭 교수가 ‘현행 식품교환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연제를 발표했고, 중앙대 가정교육과 이일하 교수가 ‘한국인 영양권장량’ 특강을 했다. 주제별 토의에서는 ‘표준체중 및 총열량 계산’(최문기/한림의대 내과), ‘3대 영양소 배분 및 열량별 교환 단위수’(위경애/서울대병원 영양과), ‘식품교환군의 배열 및 교환단위’(김은미/고려병원 영양실), ‘당뇨병 합병증시 식사요법’(김정남/신촌세브란스병원 영양과) 등이 발표됐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그

성과를 담은 『당뇨병 식사요법지침서』 개정판이 발간되어 1995년 5월 13일 제9차 춘계학술대회에서 회원들에게 배포됐다.

또 식품영양위원회는 1999년 11월 7일 당뇨병 환자와 일반인을 위한 외식지침서 『외식의 길잡이』를 발간했다. 47쪽 분량의 이 책은 외식을 할 때 흔히 선택하게 되는 음식물 59가지를 선택하여 각각의 칼로리를 직접 계산한 것으로, 실물사진을 곁들여 이해를 돕고 있다.

2001년 5월 19일 신라호텔에서 식품영양위원회 워크샵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는 현행 식품군 분류의 문제점, 외국의 식품군 분류 현황, 영양 상담과 교육실태, 단계별 식사교육 지침 등의 내용이 다루어졌다. 이후에도 식품영양위원회는 사업성과를 담은 『당뇨병 임상영양치료』(2003년 11월 5일) 등의 책자 발간을 통해 꾸준한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2008년에는 식품영양위원회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식품교환표 활용 현황에 대해 3월 약 2주간에 걸쳐 당뇨병 교육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총 101명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4) 전망

앞으로 식품영양위원회는 식품교환표 개정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를 모아 공청회 및 세미나

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식생활에 맞는 식품교환표를 만들고 표준화하여,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당뇨병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특수 계층 즉, 소아, 노인 및 임신부를 위한 영양지침에 대한 검토를 실시, 현재의 기준이 적절한지를 논의하고 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행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사증후군 및 비만에 대해 식품 영양학 적인 측면에서의 중재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이므로 이를 위한 체중감량 및 위험인자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는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역대 임원

	활동시기	위원장	간사
1~2대	1987~1991	이흥규	
3대	1992~1993	유형준	홍관수
4대	1994~1995	최동섭	고경수
5~6대	1996~1999	이현철	김현만
7대	2000~2001	김현만	박석원
8대	2002~2003	김용성	유순집
9대	2004~2005	우정택	김성훈
10대	2006~2007	김용성	남문석
11대	2008~2009	장학철	임수, 조재원

〈작성 : 식품영양위원회 이사 장학철, 간사 임수/조재원〉

4. 약제 및 보험법제위원회 (Committee of Drug and Health Insurance)

1) 설립에서 현재까지

1987년 1월 23일 평의원회에서 현 위원회의 전신인 약제위원회(영문 Council of Therapeutics) 설치가 의결, 초대 위원장으로 윤영길 회원이 선임되었고 위원으로 허갑범, 이태희, 이흥규, 손호영, 김선우, 김영설 회원이 선임되었다. 1987년 9월 12일 열린 평의원회에서 약제위원회의 규정이 보고, 검토되었고, 1987년 12월 제4차 평의원회에서 위원장을 허갑범 회원으로 교체하였다. 위원도 이흥규, 손호영, 김선우, 김영설, 이현철, 신순현 회원으로 약간 명 교체되었다.

한편, 1992년 보험법제위원회가 설립되어 7월 13일 1차 회의를 가졌다. 1987년 10월 30일 열린 평의원회에서 보험위원회 설치에 대한 논의가 되었으나 실제 설립까지는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초대위원장은 김선우 회원이, 간사는 김영설 회원이 맡았다.

이후 2002년 3월 20일 약제위원회와 보험법제위원회는 약제 및 보험법제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었다.

위원회 규정은 대한당뇨병학회가 이사장 체제가 되면서 약제 및 보험법제위원회 이사는 학회 정회원 중 이사장이 선임하고, 위원은 이사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위촉하며, 일

년에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2) 구성목적

전신인 약제위원회는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당뇨병 약제에 대한 제반 연구, 심의 및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이후 약제 및 보험법제위원회는 대한당뇨병학회와 관련된 제반 보험-법제 업무 및 당뇨병 관련 약제에 대한 제반 연구, 심의를 담당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사업

- 전신인 약제위원회는
- 당뇨병치료제로 적합한 약제의 효능 평가를 위한 연구 사업
 - 유효한 당뇨병치료제의 사용 교육을 위한 사업
 - 각종 당뇨병치료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의 평가 및 대책
 - 당뇨병치료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정책수립과 홍보 사업
 - 기타 학회에서 의뢰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였고,

현재의 약제 및 보험법제위원회는

- 외부 유관단체 및 당뇨병학회 회원들의 질의에 대한 응신
- 약제, 검사, 교육에 관련된 보험 수가 항목의 개발 및 타당성 평가
- 신약정보 검토 및 소개
- 학회 및 제 위원회 규정 검토를 사업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약제위원회 시기 :

1987년 3월 30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당뇨병 치료제의 부작용 모니터, Monosulin의 약효 평가와 항인슐린 항체 생성의 정도 등 약효 평가 작업, 방송 매체에 의한 당뇨병 치료의 오도에 대한 대책, 위원회의 규정 검토 등이 토의되어 당시에도 방송 매체에 대한 대응을 고심했음을 알 수 있다.

1988년도에 일반의를 위한 당뇨병 치료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져 당뇨병에 대한 의사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책자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Physician's Guide to Type 2 Diabetes, Diagnosis and Treatment』를 번역, 발간하였다. 또한 인슐린 제품의 단위 통일(100 단위로)의 필요성을 각 제약회사에 통고한 것도 이 당시였다. 아울러 인슐린 주사기에 대한 환자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노력하였는데, 주사용품의 보험급여화를 위한 현재의 노력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약제위원회, 보험법제위원회 분리 운영 시기 :

약제위원회에서는 당뇨병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약품정보를 제공하고, 의약분업에 대비한 당뇨병 치료약제 분류에 대한 도움을 주었으며, 민간요법에 대한 정리를 하였다.

한편 보험위원회에서는 의사협회 및 의료보험연합회 등으로부터 의견 요청, 민원에 대한 검토와 회신을 하고, 당뇨병 영역에 새로이 출시되는 신약들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 검토, 당뇨병과 관련된 치료 사항 중 당뇨교육 및 복약상담 등 중 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한 조사와 의견 취합을 하여 향후 사업 계획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약제 및 보험법제위원회 시기 :

약제 및 보험법제위원회는 2002년 당뇨교실 교육비의 의보급여 책정을 중점사업으로 책정하였고, DRG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국가만성질환관리(협심증,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뇌졸중 포함)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치의 등록제에 관한 대한당뇨병학회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경구용 당뇨병 약제에 대한 심평원과의 지루한 질의 및 응답이 시작되었다. 한편 미세단백뇨 보험인정 재조정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선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에는 당뇨교실의 교육비를 인정비 급여로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틀을 만들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 21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약제 및 보험법제위원회는 “당뇨병관리 필수소모품의 보험급여화 문제”를 주제로 당뇨병관리의 합리화 방안을 찾기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사진은 ‘당뇨병관리에서 필수적인 의료소모품과 비용’을 기조 발제한 심강희 회원(삼성서울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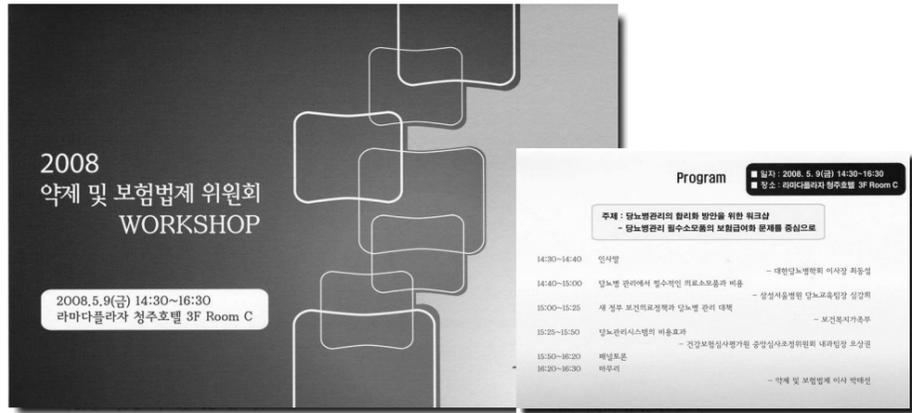
가이드라인 자료 요청 건에 대해 미국 ADA 기준, 국내 SDM 자료 및 심평원 보험관련 기준 등을 참조하여 임상 가이드라인을 4월말에 제출하였으며, IDF에서 발간한 『The Economics of Diabetes and Diabetes Care』를 위원들이 번역하였다.

2004년에는 표준화된 당뇨병 교육비에 대한 비급여 수가 가이드라인을 위해 Cost Effectiveness 연구 결과를 보고, 반영하기로 하였고, 당뇨병 관련 기자재 및 의료용구(인슐린 펌프, 주사기, strip, needle 등)의 요양 급여를 심평원에 요청하기 위해 외국의 예를 검토하는 등 구체적 준비에 들어갔으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홈페이지에 올려 알렸다.

한편, 같은 해 대한당뇨병학회의 법인 설립에 대한 검토를 하고 법인 설립 추진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약제 및 보험법제위원회는 2005년 심평원으로부터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경우 미량알부민 정량검사가 임상적 유용성이 있으므로 정량검사를 우선 실시하더라도 인정키로 하였으며 미량알부민에 대한 현행 심사지침은 재검토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아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또한 당뇨병 관련 약제 중 3제 요법(TZD를 포함하는)을 허용하여 Combination Pill과 다른 약제와 병용투여하는 외국사례를 알아보고 혈압약과 비교하여 삭감에 대한 이의 신청안을 작성하여 심평원에 제출한 후 심평원에서 자료를 요청하여 회신하였으나 심평원은 글리타존 약제의 경우 식



2008년 21차 춘계학술대회 약제 및 보험법제위원회 워크샵 초청장.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도입부터 현재의 민영보험도입 시대까지 약제 및 보험법제위원회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약청 허가사항에 3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였고, TZD 단독요법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에 있으므로 자료를 준비하여 심평원에 건의하였으나 복지부의 재정정책에 걸려 현재까지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당뇨병 관련 검사로서 간이혈당측정은 환자 상태의 변화가 있을 경우 1일 4회로, 당화혈색소는 2개월 간격으로 검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심평원의 보험급여 심사기준과 평가, 당뇨병 관련 약제에 대한 학회 의견, 당뇨병 관리 기자재 및 의료용구의 보험 등재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2006년에는 혈당측정검사지(strip)가 의료기기로 개정입법되어 9월 28일 식약청에서 개정 고시됨에 따라 치료재료로 보험급여가 가능하게 되었음이 눈에 띈다.

2007년 약제 및 보험법제위원회는 경구당부하검사서 판독료를 별도 청구할 수 있음을 모르는 회원이 많아 과거 내분비학회에서 공지되었던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 및 메일링을 통해 회원들에게 재차 알렸으며, 심평원, 식약청, 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제6차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그 내용을 위원회 회의 및 이사회 때 보고하였다. 또한 반복되는 외부질의에 대해 위원들이 보다 쉽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수 있도록 지난 4년간의 사실조회 답변사례집을 만들어 학회 및 차기 위원회에 제공하였다.

약제 및 보험법제위원회는 2008년 5월 8~10일 청주

에서 열린 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당뇨병 관리의 합리화 방안 - 당뇨병 관리 필수 소모품의 보험급여화 문제를 중심으로’ 주제로 워크샵을 열었다. 특히 미리 준비된 디지털 홍보 부스를 통해 행사장 앞에서 계속 행사 내용을 알려주고 별도의 전단을 배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준비된 방을 가득 메운 가운데 행사가 진행됨으로써 그 자리에 참석한 외부 연자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심강희 간호사가 기조발제로 ‘당뇨병 관리에서 필수적인 의료소모품과 비용’을 발표했으며, 보건복지가족부 이종규 사무관이 ‘새 정부 보건 의료정책과 당뇨병 관리대책’, 오상권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과팀장이 ‘당뇨병 관리시스템의 비용효과’를 각각 발표한 후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심 간호사는 “혈당측정용품에 대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면 환자에게는 우선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줄고 혈당검사의 빈도가 늘어나 바람직한 혈당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궁극적으로 당뇨병 합병증이 감소할 것이며, 국가적으로도 만성합병증 환자가 줄어들고 환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장기적으로 사회적 의료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 공감을 자아냈다.

이날 행사는 ‘당뇨병 관리의 합리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선정한 취지와 의도에 대해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앞으로 당뇨병 환자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선에서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후속 작업으로 먼저 제1형 당뇨

병 환자에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심평원의 협조를 얻어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 중이어서 전망이 밝다고 하겠다.

4) 전 망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도입부터 현재의 민영보험도입 시대까지 약제 및 보험법제위원회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보험재정의 한계라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요원한 것이 현 상황이지만,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고 이를 법리적 해석에 반영하는 합리적 사회질서가 발달하는 한 약제 및 보험법제위원회의 역할은 증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향후 비용대비효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많아지리라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실질적 성과물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위원들의 노력과 공이 눈에 띄지 않는 위원회라는 인식이 있으나, 생각과 관점이 다른 외부와의 다양한 접촉, 특히 정책당국과 언론계와의 관계유지가 요구되기에 위원들이 자주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문위원을 양성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학회 집행부와 학회 회원들의 관심과 격려, 적극적 참여가 뒷받침된다면 우리 회원과 당뇨병환자를 위한 대한당뇨병학회의 존재 목적 달성에 약제 및 보험법제위원회가 큰 역할을 하리라 확신한다.

역대 임원

약제위원회

	활동시기	위원장	간사
1대	1987년	윤영길	
2대	1988~1991	허갑범	
3~4대	1992~1995	이광우	윤건호
5~6대	1996~1999	김영설	최용환
7대	2000~2001	강문호	김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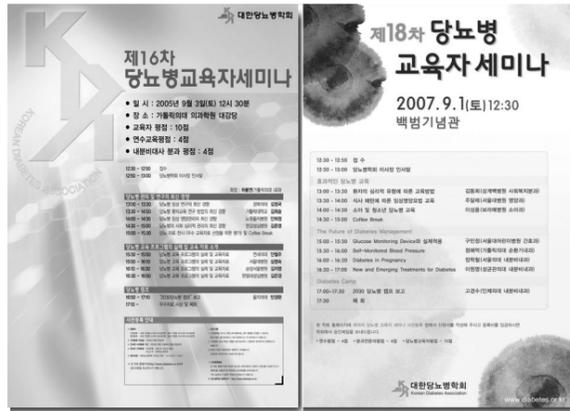
보험법제위원회

	활동시기	위원장	간사
1~4대	1992~1999	김선우	김영설
5대	2000~2001	김태화	백세현

약제 및 보험법제위원회

	활동시기	위원장	간사
1대	2002~2003	박성우	유재명
2대	2004~2005	이관우	정춘희
3대	2006~2007	이관우	박석오
4대	2008~2009	박태선	박석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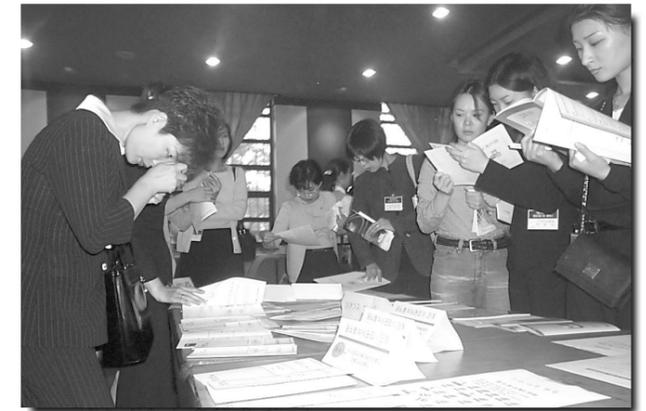
〈작성 : 약제 및 보험법제위원회 이사 박태선, 간사 박석오〉



제 16차, 제 18차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 포스터와 제18차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 장면. 당뇨병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교육위원회는 1990년 제1회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를 개최하여 2008년 현재 19번의 교육자 세미나를 열었다.



2008년 제11차 당뇨병 교육자 연수강좌. 최홍섭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자 연수강좌는 교육자 프로그램에 대한 열의를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만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판단 아래 1999년부터 시작되었다.



2000년 9월 교육자 세미나 당시 교육자료 전시회 모습.

5. 교육위원회 (Committee of Education)

1) 설립에서 현재까지

당뇨병 관리에 있어 교육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실감한 학회는 1987년 12월 21일 당년 제 4차 평의회에서 교육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의결하고, 초대 위원장에 윤영길 회원을 위촉했다. 초대 위원으로 유형준, 정민영, 함명림, 서은경, 신순현, 박혜영, 심영숙, 송오금 회원이 임직하였으며, 전국 당뇨병 교육 현황 파악, 교육지침서 작성 등의 교육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신순현 회원이 위원장을 역임할 당시인 1992년에는 일반 국민에 대한 홍보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해 위원회의 명칭을 교육홍보위원회로 변경하고 당뇨병주간을 창설하는 등의 대국민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

3대 이홍규 위원장, 4~5대 유형준 이사 시기를 거쳐 6대 최동섭 이사 시기인 2002년에는 교육위원회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활동을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교육홍보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홍보위원회로 분리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당뇨병 교육자 연수강좌,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 단계별 당뇨병 관리 교육, 2030 당뇨캠프 등의 사업을 맡고, 당뇨병주간 행사, 학회 소식지 발간, 미디어 활동 등은 홍보위원회가 담당하기로 했다. 이후 2008년 캠프소위원회가 구성되어

2030 당뇨캠프는 캠프소위원회 소관 사업이 되었다.

2008년 현재 김두만 이사과 강준구 간사 외 22명의 교육위원이 교육위원회를 맡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구성목적

교육위원회는 당뇨병 교육에 관한 연구, 실행 및 평가를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2008년 현재 의사 19명, 간호사 3명, 영양사 3명, 사회복지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뇨병교육에 관여하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3) 교육위원회 사업

- 당뇨병 교육 현황 파악
- 당뇨병 교육방법, 자료 개발, 평가에 관한 연구 개발 및 보급
- 당뇨병 교육자를 위한 교육 및 조직 구성 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시행하고 있다.
- 주요 행사 : 교육자 세미나, 교육자 연수강좌, 단계별 당뇨병 관리 교육(SDM)
- 기타 행사 : 교육자를 위한 교육과정

1987년 신설된 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뇨병 교

육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교육위원회는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제1차 세미나를 1990년 '당뇨병 교육자의 역할'을 주제로 열었다. 교육자 세미나는 연 1회 가을에 개최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19차에 이르렀다. 2000년 11차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부터는 각 병원의 우수 교육자료 전시회도 진행하여 벤치마킹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자 프로그램에 대한 열의를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만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제2의 교육자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결정, 1999년 제1차 당뇨병 교육자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교육자 연수강좌는 연 1회 봄에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교육자 세미나와 교육자 연수강좌는 당뇨병 교육자 자격인정을 취득 하기 위한 인정시험의 필수 이수과목이기도 하다.

한편, 당뇨병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감에 따라 전국의 개원의에게도 당뇨병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커져갔다. 학회는 1992년 미국 International Diabetes Center (IDC)에 남홍우 회원을 파견하여 단계별 당뇨병 관리(Staged Diabetes Management, SDM) 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고 1999년에는 한국판 SDM 책자를 발간했다. 드디어 2000년 4월 제1회 SDM이 부천시 의사회 개원의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개원의를 대상으로 한 달에

1~3회씩 정기적인 SDM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SDM에 참석한 개원의 수는 6,400여명, 횟수는 총 122회에 달한다. 무료로 교육되고 있는 SDM은 개원가에서 좋은 반응과 교육 효과를 얻었으며, 그 동안 한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위해 책자 개정과 매뉴얼에 대한 개정 작업도 세 차례 진행되었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에서 교육자를 위한 학술대회를 열어 교육자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해외의 앞선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는 데도 큰 힘을 기울였다. 이는 외국계 제약회사를 통해 필요 시기마다 “당뇨병 교육자를 위한 교육과정” 등의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제 1회는 1993년 개최되었고, 릴리, 한국에 보트, 존슨앤존슨 등의 제약회사를 통해 당뇨교실에 종사하는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간간히 진행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당뇨병을 올바르게 알자』(1, 2판), 『당뇨병 교육 지침서』(1, 2판), 『단계별 당뇨병 관리』(1, 2, 3판), 『당뇨병 교육자를 위한 단계별 당뇨병 관리』, 『인슐린 요법』, 『당뇨병 교육의 치료적 시각』 등의 책자 발간, 『당뇨상담가이드북』, 『건강을 지키는 칼로리 카드』, 『식품교환표』 등의 스티커·카드류 발간, 『알기쉬운 당뇨병 I, II』 비디오 발간 등 왕성한 간행 사업도 벌였다.



교육위원회는 「당뇨병을 올바르게 알자」, 「당뇨병 교육 지침서」 등 왕성한 간행 사업을 벌였다.



교육자 자격인정 시험. 응시자들이 시험을 치르는 모습과 채점위원들이 채점하는 장면이다. 대한당뇨병학회는 1999년 당뇨병 교육자 자격 인정증 제도를 만들었다.

4) 전망

당뇨병학회는 한국에서 당뇨병 교육자 교육을 실시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당뇨병에서 교육의 중요함만큼 학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교육위원회는 앞으로 체계적인 교육자 교육과 관리, 교육자 자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에 힘을 쏟을 것이다.

역대임원

	활동시기	위원장	간사
1대	1987~1991	윤영길	유형준
2대	1992~1995	신순현	홍성관
3대	1996~1997	이흥규	홍성관
4대	1998~1999	유형준	남홍우
5대	2000~2001	유형준	남홍우
6대	2002~2003	최동섭	김두만
7대	2004~2005	차봉연	민경완
8대	2006~2007	차봉연	남홍우
9대	2008~2009	김두만	강준구

〈작성 : 교육위원회 이사 김두만, 간사 강준구〉

6. 교육자 관리위원회

당뇨병환자 교육에 종사하는 전문 교육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당뇨병 교육자 자격 인정증 제도를 1999년 만들었다.

당뇨병 교육자 자격 인정증은 교육자 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며 해당임기의 이사장이 관리위원장이 되고, 교육이사가 관리위원회의 간사를 겸하여 교육위원회와의 연계성을 갖도록 하였다.

1999년, 2000년에는 각 지역 평의원의 확인절차를 거쳐 서류전형으로만 교육자를 뽑았고, 3회인 2001년부터는 서류심사 외에도 시험과 면접제도를 도입하여 객관적으로 교육자를 뽑는데 주력하였다.

교육자 자격 인정증 제도로 당뇨병 교육자가 500명에 달하자 교육자 인정병원이란 제도(2001년)도 실시하였는데, 이는 인정증을 취득한 교육자가 의사를 포함하여 3개 분야에 고루 있을 경우 그 병원을 당뇨교육 전문병원으로 인정하여 학회의 제도 안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당뇨병 자격 인정증을 통한 교육자의 전문화, 당뇨병 인정병원의 지속적인 배출을 통한 교육기관의 확대는 당뇨병 학회가 당뇨병 교육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화에 힘써온 결과이다.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이다.

7. 연구위원회 (Committee of Research)

1) 설립에서 현재까지

당뇨병 관련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당뇨병 연구의 진흥을 돕고자 1992년 연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초대 위원장을 이흥규 회원이 맡았고 초대 위원으로 신찬수, 김성운, 백홍선, 윤건호, 임성희 회원이 활동하였다.

1993년 7월 17일 당뇨병 관련 연구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모으고 당뇨병 관련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워크숍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1995년부터는 '당뇨병 하계 워크숍'으로 일원화하여 많은 회원들의 관심 속에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2~3대 손호영 위원장 재직시인 1997년부터는 '당뇨병 연구를 위한 정례 집담회'를 년 4회 시행하여 관심 있는 회원들의 당뇨병 관련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4대 이기업 이사, 5대 유형준 이사, 6대 이문규 이사, 7대 박경수 이사 시기를 거치면서 연구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

2001년까지 강의 방식으로 진행하던 하계워크숍을 2002년부터는 실습 방식으로 전환하여 연구자들이 연구 방법을 몸으로 체험하고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또한 2003년부터는 회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연구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학회 연구

비를 제정하여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4편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1년에 총 16편의 과제에 대해 연구비를 지급하였다. 2003년 유형준 이사 시기에는 당뇨병 관련 연구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연구기법을 망라한 『당뇨병 연구기법』 책자를 발간하여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005년부터는 당뇨병학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술활동을 장려하고자, 당뇨병학의 연구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세운 젊은 연구자에게 학술상 수여하기로 하고 'Young Investigator Award'를 제정하여 수여하고 있다. 한편, 1986년 설립 김응진 명예회장의 회사금으로 제정된 설원 연구비도 연구위원회에서 담당, 연구비 수혜자를 선정해왔다.

1997년부터 여러 세부 분야에 대해 관심 있는 회원들이 모여 소연구회를 구성하여 현재 총 9개의 소연구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연구위원회에서는 소연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세로토닌 소연구회(회장 강성구)의 경우 2000년 4월 설립되어 활동하다가 2002년 12월 활동을 종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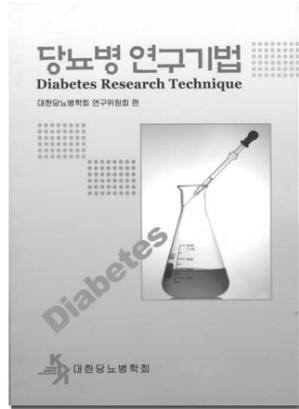
2008년 현재 이인규 연구이사와 이우제 간사 외 13명의 위원이 연구위원회를 맡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구성목적

연구위원회는 당뇨병 관련 연구의 진흥을 위해 설치되었



연구위원회는 1993년 당뇨병 연구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모으고 당뇨병 관련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워크샵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1995년부터는 당뇨병 하계워크샵으로 일원화하여 많은 회원들의 관심 속에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1998년 하계워크샵.



연구위원회는 2003년 당뇨병 관련 연구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연구기법을 망라한 『당뇨병 연구기법』을 발간하였다.

다. 당뇨병 관련 연구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모으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비 수여, 워크샵 개최, 소연구회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3) 연구위원회 사업

- 집담회, 워크샵을 포함한 당뇨병 연구 진흥을 위한 행사
-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서 인준 받은 규정에 의거한 학회 연구비 수여 대상의 심사 및 지급
- 당뇨병 연구의 진흥을 위한 책자의 발간
- 학회에 소속된 소연구회의 현황 파악 및 지원
- 홍보위원회의 협조 아래 학회 홈페이지 내 위원회 사이트의 운영
- 기타 학회에서 의뢰되거나 당뇨병 연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대한당뇨병학회 연도별 연구비 지급 현황

년 도	연구비 지급 편수
1991년	1
1992년	1
1993년	1
1994년	3
1995년	3
1996년	3

년 도	연구비 지급 편수
1997년	3
1998년	3
1999년	4
2000년	9
2001년	14
2002년	13
2003년	13
2004년	15
2005년	18
2006년	17
2007년	19
2008년	19
총편수	159

4) 전망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당뇨병을 예방, 치료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당뇨병의 근원적인 예방, 치료를 위해서는 당뇨병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관련 연구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당뇨병 관련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위원회는 회원들이 당뇨병 관련 연구에 관심을 갖고 원활히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아



2005년부터 당뇨병학의 연구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세운 젊은 연구자에게 'Young Investigator Award'를 제정하여 수여하고 있다. 사진은 2007년 상을 수혜한 최경목 회원.



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다.

역대임원

	활동시기	위원장	간사
1~2대	1992~1995	이흥규	신찬수
3~4대	1996~1999	손호영	이병두
5대	2000~2001	이기업	김철희
6대	2002~2003	유형준	김동준
7대	2004~2005	이문규	송기호
8대	2006~2007	박경수	조영민
9대	2008~2009	이인규	이우제

소연구회 현황

현재 9개의 소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명칭	발족일자	현 회장/간사	비고
혈관세포	1997.11.15	차봉연/권혁상	
노인당뇨병	2002.7.16	조용욱/김수경	
운동	2002.7.16	박성우/민경완	
당뇨병성 신경병증	2003.3.14	차봉연/이정민	
에너지대사	2005.9.21	김민선/조영민	인슐린당대사+미토콘드리아 통합
대사증후군	2005.12.2	이현철/임수	
			베타세포소위원회(2000.3.24 발

명칭	발족일자	현 회장/간사	비고
체도이식 베타세포	2007	김광원/이문규, 박용수	죽)와 체도이식소위원회(2006년 발족)가 2007년 체도이식베타세포 소위원회로 통합
자가관리	2007.4.10	유혜숙/심강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로 구성
임신성 당뇨병	2007.6.12	조남한/박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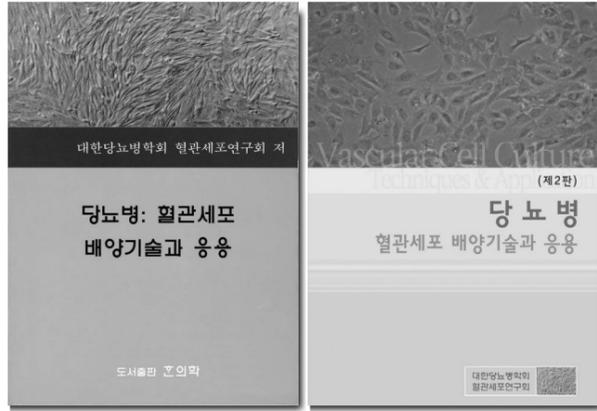
〈작성 : 연구위원회 이사 이인규, 간사 이우제〉

■ 혈관세포 소연구회 (Study group for Diabetic Vascular Cell Biology)

1) 설립에서 현재까지

40년 전 당뇨병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당뇨병 유병률과 발생률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당뇨병 연구 업적들도 지속적으로 쌓여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당뇨병의 여러 연구 분야들 중 당뇨병성 혈관합병증 연구의 바탕이 되는 당뇨병성 혈관생물학 분야를 연구할 목적으로 1997년 11월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위원회 산하에 혈관세포 소연구회가 만들어졌다.

혈관세포 소연구회는 실험에 대한 지식 및 기법의 상호교류를 통한 연구 활동의 고양을 위해 혈관세포 배양을 하고



소연구회 중 가장 먼저 설립된 췌관세포 소연구회는 당뇨병성 췌관합병증 연구의 바탕으로 되는 당뇨병성 췌관생물학 분야를 연구할 목적으로 1997년 설립되었다. 췌관세포 소연구회는 1999년 『당뇨병-췌관세포 배양 기술과 응용』을 발간했고 2007년 제2판을 발간하였다.



2006년 제19차 춘계학술대회 장소에서 열린 췌관세포 소연구회 모임 후 기념 촬영.

있던 당뇨병 연구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졌으며, 대한당뇨병학회 소연구회들 중 가장 먼저 설립되었다.

췌관세포 소연구회의 설립에서 현재까지의 역사를 살펴 보면, 1997년 9월 당뇨병 췌관 세포 연구의 실제적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유형준 회원이 발의하여 차봉연 회원 등 실제 연구에 몰두하고 있던 당뇨병 췌관세포 실험 연구자들과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1997년 11월 15일 춘계학술대회에서 손호영 연구위원장 및 이병두 연구위원회 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유형준, 김두만, 김태화, 차봉연, 이인규, 김보완 회원 등이 췌관세포 소연구회를 설립하였다.

설립 이후 대외적인 활동의 시작은 1998년 3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7차 '당뇨병과 췌관내피세포이상 연구회' 학술대회에 참석(한림의대 김두만 회원, 부산의대 김인주 회원의 구연 발표)하여 일본 학자들과 학술적 교류를 가진 것이었다.

췌관세포 소연구회는 1998~1999년 2년간 '당뇨병성 죽상동맥 경화의 병인 기전 규명과 치료 기술 개발'이라는 연구제목으로 보건복지부 연구비를 수혜 받아 췌관세포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1999년 11월에는 췌관 세포배양 실험 연구를 하면서 얻어진 실제적 지식과 기술들을 세부 분야의 전문 실험연구자들로부터 취합해 이 분야의 실험에 관심 있는 당뇨병 췌관생물학 연구자들과의 대화 지침서인 『당뇨병-췌관세포 배양 기술과 응용』을 발간

하였다.

또한 췌관세포 소연구회는 매년 대한당뇨병학회 학술대회를 이용하여 췌관세포 소연구회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췌관세포 연구의 저변을 확대해왔다. 대외적으로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8편 이상의 당뇨병성 췌관세포 연구와 관련된 종설을 BRIC (Biologic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의 『Biology』 지에 게재하였다. 2007년 7월에는 췌관세포 소연구회가 10주년을 맞아 『당뇨병 췌관세포 배양기술과 응용』 제2판을 발간하였다.

2) 구성목적

췌관세포 소연구회는 당뇨병 분야에서 췌관세포 배양을 비롯한 췌관세포를 이용한 당뇨병 췌관생물학 분야의 연구에 관한 학문적, 실제적 지식 및 기법의 상호교류를 통한 연구 활동의 고양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3) 사업

- 당뇨병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당뇨병성 췌관질환의 실험 연구기반 조성
- 당뇨병 췌관세포 배양 기술과 응용에 관한 실험실적 자료 및 책자 발행
- 당뇨병성 췌관질환의 최신 지견 습득을 위한 세미나 및 당뇨병 학회 췌관세포 연구회 심포지엄 개최

4) 전망

췌관세포 소연구회는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위원회 산하의 소연구회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어진 연구회로 지속적으로 췌관세포를 이용한 실험실 연구를 도모할 것이다.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췌관 합병증의 조기 발견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당뇨병성 췌관질환의 연구를 위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당뇨병성 췌관질환의 병인, 병태기전, 나아가서 진단과 치료의 방편을 마련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노력을 할 것이다.

역대 임원

	회장	간사
1대	김용기	김두만, 김인주
2대	김보완	김두만, 김인주
3대	유형준	이병완
4대	차봉연	권혁상

〈작성 : 췌관세포 소연구회 회장 유형준, 간사 이병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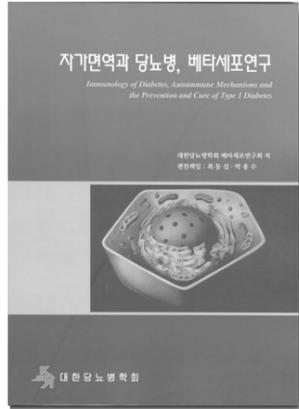
■ 췌도이식 베타세포 소연구회 (Study group for islet transplantation & beta cell biology)

1) 설립에서 현재까지

자가면역 기전을 바탕으로 하는 제1형 당뇨병의 연구 및 췌장 베타세포의 세포생리화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1999년 11월 영남대에서 시작된 제1회 당뇨병·비만연구회 심포지엄에서 발의된 바에 따라 학·연·산의 여러 기초 및 임상의학자들의 연구교류를 위하여 2000년 3월 24일 베타세포 소연구회가 발족하였다.

이 모임의 목표는 췌장 베타세포를 중심으로 한 세포생리학적 연구자와 자가면역 기전을 중심으로 한 제1형 당뇨병 연구자들간의 학문적 교류를 도모하고 학·연·산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주요 과학기술 부문의 현안과제 해결 및 미래지향적인 과제 탐색과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공동 연구 및 임상실험 등을 시도하기 위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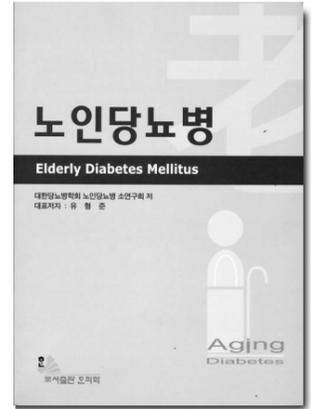
베타세포 소연구회의 당시 정식 회원 수는 34명이었고, 회장은 고려의대 최동섭 회원, 간사는 한양의대 박용수 회원이었다. 회원의 자격은 제1형 당뇨병의 연구 및 췌장 베타세포의 세포생리화학적 연구를 시행하는 학·연·산의 여러 기초 및 임상의학자들로서 베타세포 소연구회의 운영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 규정하였으며, 발족 후 첫 세미나를 2000년 9월 26일 고려의대 안암병원에서 가졌고 아주의대 강영 교수가 '베타세포에서 GAD 유전자의 발현 조절'



2004년 7월 베타세포 소연구회는 「자가면역과 당뇨병, 베타세포연구」를 발간하였다. 베타세포 소연구회와 췌도이식 소연구회는 2007년 발전적 통합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6년 제19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췌도이식 소연구회가 "ISLET TRANSPLANTATION BEYOND SIMPLE REPLACEMENT OF ISLET MASS"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사진은 심포지엄에서 안규정 회원(경희의대)이 '췌도이식을 통한 당뇨병 합병증과 삶의 질 개선'을 주제로 강연하는 장면.



노인당뇨병 소연구회는 2003년 노인당뇨병의 역할, 병인, 진단, 치료, 교육 등 노인당뇨병에 대한 지침서가 될 수 있는 『노인당뇨병』을 출간하였다. 노인당뇨병 소연구회는 노인당뇨병의 예방과 올바른 관리를 위한 모든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에 대하여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췌도이식 소연구회는 이보다 늦게 2006년 1월 17일 발족신청을 하여 대한당뇨병학회의 승인을 받은 후 삼성서울병원 강당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회장은 성균관 의대 김광원 회원, 간사는 성균관의대 이문규 회원과 비회원이지만 외과의 참여가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성균관의대 외과의 김성주 교수가 함께 맡았다.

췌도이식은 아직 임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치료 방법은 아니지만 향후 발전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폭넓은 연구가 진행 중이며, 북미와 유럽에서는 연구 뿐 아니라 임상 적용 역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치료 면에서의 효율이 향상되고 있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소수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해 연구 목적으로 소규모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일 뿐이다.

국내 췌도이식의 발전은 효과적인 면역억제요법의 개발과 췌도 분리 기술의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서, 일본에서 생체 공여자의 부분췌장 공여에 의한 동종 췌도 이식이 성공한 점에 자극 받았다. 또한 국내의 당뇨병환자가 급증하면서 췌도이식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의 1차적 임상 적응증 중 한 가지가 제1형 당뇨병임과도 무관하지 않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췌도이식의 기초적, 임상적 연구가 아직까지 각 연구자 별로 진행되고 있을 뿐 학문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연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가까운 미래에 임상에 적용하게 될 췌도이식에 대해 국내 실정에 맞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췌도이식 소연구회를 발족한 것이다.

췌도이식 소연구회는 췌도이식에 관한 기초 연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이식 프로토콜 확립, 각 회원 간의 임상 경험의 공유 및 협진을 그 활동 목적으로 하였다. 정식 회원의 자격은 췌도이식 및 관련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기초 및 임상의로 하였고, 김광원 회원을 포함하여 22인으로 구성하였는데, 기초교수로 인하의대 해부학교실의 박인선 교수, 외과교수로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의 한덕중, 김송철 교수, 연세의대 김명수 교수, 그리고 성균관의대 김성주 교수가 각각 참여하였다.

두 소연구회는 각각 활동을 해 오다가, 2007년 초 발전적으로 통합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구성목적

췌도이식 베타세포 소연구회는 베타세포 소연구회와 췌도이식 소연구회의 목적을 그대로 계승하기 위하여 대한당뇨병학회 내에 설치된 연구회로서 췌장 베타세포를 중심으로 한 세포생리학적 연구자와 자가면역 기전을 중심으로 한 제1형 당뇨병 연구자들간의 학문적 교류를 도모하고, 또한 췌도이식에 관한 기초 연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이식 프로토콜 확립, 각 회원 간의 임상 경험의 공유 및 협진을 그 활동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3) 사업

- 췌도이식 심포지엄
- 베타세포 생물학 세미나
- 베타세포 연구기법서 출간
- 췌도이식 프로토콜 확립
- 대한당뇨병학회와 이식학회와의 접촉 창구 역할

4) 전망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만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질병이며,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당뇨병의 병태생리에서 인슐린 결핍의 중요성이 밝혀지고, 또한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향후 췌도이식 및 베타세포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점점 더 증대할 것이 확실하며, 대한당뇨병학회 산하 췌도이식 베타세포 소연구회의 역할은 점차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역대임원

	활동시기	회장	간사
베타세포 소연구회	2000~2007	최동섭	박용수
췌도이식 소연구회	2006~2007	김광원	이문규, 김성주
췌도이식 베타세포 소연구회	2007~현재	김광원	이문규, 박용수

〈작성 : 췌도이식 베타세포 소연구회 회장 김광원, 간사 이문규·박용수〉

■ 노인당뇨병 소연구회

(Elderly Diabetes Investigation Team, EDIT)

1) 설립에서 현재까지

최근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었다. 당뇨병은 노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대표적 질환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국내의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50% 이상이 당뇨병 관련 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될 만큼 노인당뇨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또한 노인당뇨병의 발생기전이 젊은 환자에서와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관리 방법 역시 매우 다르다. 따라서 노인당뇨병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노인당뇨병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 극히 미비하였다. 이에 2002년 7월 16일 대한당뇨병학회 내 노인당뇨병 소연구회가 결성되었다. 초대회장은 그간 노인당뇨병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던 유형준 회원이 맡았고, 2대 최문기 회장, 3대 장학철 회장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노인당뇨병 연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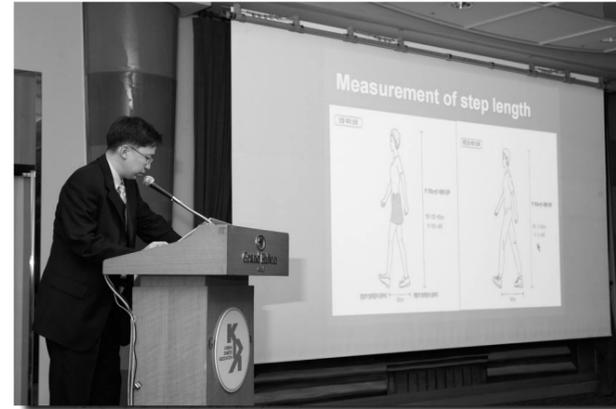
2003년 5월에는 유형준 회장을 중심으로 노인당뇨병 소연구회 회원들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노인당뇨병의 역할, 병인, 진단, 치료, 교육 등 노인당뇨병에 대한 지침서가 될 수 있는 『노인당뇨병』을 출간하였고, 매년 학술대회 때 노인당뇨병과 관련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격



노인당뇨병 소연구회가 2008년 8월 26일 학회 회의실에서 세미나 후 기념촬영을 했다.



2006년 제19차 춘계학술대회 운동 소연구회 심포지엄에서 민경완 회원(울지의대)이 '한국인 당뇨병환자의 운동특징'을 강연하고 있다.



2006년 제19차 춘계학술대회 운동 소연구회 심포지엄에서 손태서 회원(가톨릭의대)이 '당뇨병환자에게 알맞은 운동거리 및 운동시간 발표'를 강연하고 있다.



2007년 열린 미토콘드리아 학술대회 사진. 이홍규 에너지대사 소연구회 초대 회장과 조영민 간사의 모습이 보인다. 에너지대사 소연구회는 기존의 '인슐린 당대사 소연구회'와 '대사성 증후군 및 미토콘드리아 소연구회'의 "미토콘드리아 연구" 부문이 합쳐져서 2005년 설립되었다.

월로 집담회를 개최하여 노인당뇨병과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 및 소연구회 회원들간의 유대를 다지고 있다. 2008년 현재 조용욱 회장을 중심으로 15명의 회원들이 노인당뇨병 소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다.

2) 구성목적

노인당뇨병 소연구회는 노인당뇨병의 역학, 병인,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연구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런 연구를 통해 노인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치료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사업

- 격월마다 집담회 개최
- 매년 노인당뇨병 관련 심포지엄 개최
- 노인당뇨병 소연구회 회원들의 협력 하에 공동연구 진행
- 노인당뇨병과 관련된 지침서 또는 교과서 발간

4) 전망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젊은 환자들에 비해 병인, 진단 및 관리 등 모든 면의 연구에서 소외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은퇴 이후의 여명기간이 20여 년 이상이며 점차 노인당뇨병 환자가 증가됨을 고려할 때 국가적인 대책이 요구될 만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노인당뇨병에 대한 학문적 배경과 사회적, 경

제적 제도 장치 등은 아직은 열악한 실정이다. 대한당뇨병 학회 노인당뇨병 소연구회에서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밖에 없는 노인당뇨병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여, 노인당뇨병의 예방과 올바른 관리를 위한 모든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역대 임원

	활동시기	회장	간사
1대	2002~2003	유형준	홍은경
2대	2004~2005	최문기	조영중
3대	2006~2007	장학철	조영중
4대	2008~2009	조용욱	김수경

〈작성 : 노인당뇨병 소연구회 회장 조용욱, 간사 김수경〉

■ 운동 소연구회(Study group for exercise)

1) 설립에서 현재까지

운동소연구회는 2002년 7월 16일 당뇨병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자동화 컴퓨터화에 의해 점차 감소하는 운동에 관한 체계적 연구를 위해 관심 있는 인사들의 취지를 모아 발족하였다. 박성우 회원이 회장을, 민경완 회원이 간사를 맡아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2) 구성 목적

당뇨병 운동요법의 적절한 지침 설정

3) 사업

- 분기별 세미나 개최
- 회원간 공동 연구 장려
- 당뇨병 운동 연구 관련 책자 발간

4) 전망

당뇨병 운동요법에 관한 연구 및 상호협조와 이에 바탕한 실제적 운동요법 지침을 설정하는데 의미 있는 활동을 할 것이다.

〈작성 : 운동 소연구회 회장 박성우, 간사 민경완〉

■ 에너지대사 소연구회

(Study group for energy metabolism)

1) 설립에서 현재까지

에너지대사 소연구회는 기존의 '인슐린 당대사 소연구회'와 '대사성 증후군 및 미토콘드리아 소연구회'의 "미토콘드리아 연구" 부문이 합쳐져서 2005년 9월 21일 설립되었다. 두 연구회의 통합 배경에는 당시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이 인슐린 분비 장애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인슐린 당대사 연구의 중추에 자리를 잡게 된 사실이 크게 작용하였다. 초대 회장은 서울의대의 이홍규 회원이, 간사는 울산의대의 김민선 회원과 서울의대의 조영민 회원이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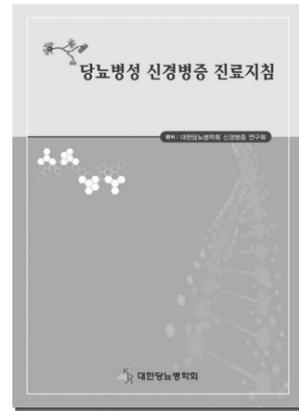
'인슐린 당대사 소연구회'의 경우, 2000년 7월 21일 울산의대 이기업 회원의 발의로 시작되었으며 당시 이기업 회원이 회장을, 최철수 회원이 간사를 맡아 당뇨병의 발병 기전과 관련된 연구 주제를 폭넓게 다루면서 해당 연구자들의 결속을 이루고 많은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훌륭한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대사성 증후군 및 미토콘드리아 소연구회'는 2002년 7월 서울의대 이홍규 회원의 발의로 당시 당뇨 및 비만을 전공으로 하는 교수들의 핫이슈였던 대사성 증후군을 연구하면서 또한 이러한 '증후군'의 기본 바탕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던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을 같이 연구하고자 하는 의도로 출범하였다. 당시 이홍규 회원이 회장을, 서울의대 조영민 회원이 간사를 맡아 일하였다.

이 두 연구회는 모두 2005년 7월 11일부로 활동을 종료하였고 2005년 9월 21일 '에너지대사 소연구회'로 통합, 재출범하였다. 2008년 현재 김민선 회원이 회장을, 조영민 회원이 간사를 맡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구성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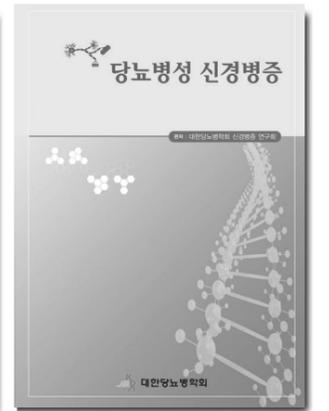
포도당 및 지질 대사 등 에너지 대사와 관련하여 당뇨병,



당뇨병성 신경병증 소연구회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용어, 분류, 역학 조사, 진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진료 지침서』를 발행하면서, 우리나라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관리 지침을 제시하였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한 교과서의 부재와 의사나 건강 관련 직종 종사자들이 참고할 만한 지침서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2006년 7월 『당뇨병성 신경병증』 교과서를 발행하였다.



인슐린 저항성 및 대사증후군 등의 병인 연구

3) 사업

- 분기별 세미나 개최
- 회원간 공동 연구 장려
- 에너지대사 연구 관련 책자 발간

4) 전망

에너지대사 소연구회는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및 대사증후군의 병태생리적 기전에 관여하는 에너지대사 이상에 대한 회원들간의 폭넓은 연구 및 협력을 통해 현재 세계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들 질환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인슐린 당대사 소연구회(2000.7.21~2005.7.11)

	회장	간사
1대	이기업	최철수
2대	이기업	김민선

대사성 증후군 및 미토콘드리아 소연구회 (2002.7.16~2005.7.11)

	회장	간사
1대	이홍규	조영민

에너지대사 소연구회(2005.9.21~)

	회장	간사
1대	이홍규	조영민
2대	김민선	조영민

(작성 : 에너지대사 소연구회 회장 김민선, 간사 조영민)

■ 당뇨병성 신경병증 소연구회

(Study group for diabetic neuropathy)

1) 설립에서 현재까지

당뇨병은 당뇨병 그 자체로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이지만 합병증을 동반하면서 당뇨병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다. 당뇨병의 많은 합병증 중에서 미세혈관 합병증의 하나인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환자에게 여러 가지 증상을 초래하며, 자율 신경병증과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합병증 중의 하나이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그 정의와 증상이 모호해 연구자들에게 간과되고 있었으나 최근 환자의 삶의 질이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점점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2003년 3월 학회 연구위원회 산하에 당뇨병성 신경병증 소연구회를 발족하여 다른

합병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보였던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한 적극적인 역학 조사와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연구를 뒷받침하게 되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소연구회는 초대 회장인 이홍규 회원을 중심으로 연구진이 모여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용어, 분류, 역학 조사, 진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진료 지침서』를 처음으로 발행하면서 우리나라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관리 지침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당뇨병을 관리하는 의료인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김영설 회원이 2대 회장을 맡았고 현재 차봉연 회장을 중심으로 조정구, 박태선, 고경수, 김동선 회원 등 관심 있는 여러 회원들이 함께 모여 초기 신경병증 소연구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 중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한 적절한 교과서의 부재와 당뇨병을 관리하는 의사나 건강 관련 직종 종사자들이 참고할 만한 지침서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2006년 7월 5일 『당뇨병성 신경병증』 교과서를 발행하였고, 이후 2007년 11월 1일에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진료 지침서』 개정판을 발행하였다.

대한당뇨병학회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에서도 2006년 이후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한 최신 지견을 소개하기 위하여 해외 연자를 초청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임상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세미나를 하기도 하였다. 이

러한 노력의 결과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던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고, 현재도 임상적인 연구와 기초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늘어만 가는 당뇨병환자의 관리에 있어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신경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당뇨병성 신경병증 소연구회에서 앞장서 수행하려고 한다.

2) 구성목적

당뇨병성 신경병증 소연구회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관심이 있는 당뇨병 연구자들 및 타 분야의 전문가들과 적극적인 상호협조를 통하여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식 발전을 도모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초학적 연구와 임상연구를 장려한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소연구회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용어, 분류, 역학 조사, 진단 방법, 관리, 약물 치료 등에 대한 연구, 실행 및 평가를 통하여 우리나라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관리 지침을 제시할 뿐 아니라 이를 당뇨병을 관리하는 의료인에게 알릴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설치하였다.

3) 사업

-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역학 조사 및 추적 관찰

-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교과서, 진료 지침서 발행
-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최신 지견 습득을 위한 세미나 개최

4) 전망

당뇨병성 신경병증 소연구회는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위원회 산하의 소연구회 중에서 유일하게 특정한 당뇨병성 합병증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소연구회로, 늘어만 가는 당뇨병환자의 관리에 있어서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다른 합병증의 조기 발견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관리와 예방에 노력을 할 것이다.

역대임원

	활동시기	회장	간사
1대	2003.3 ~ 2004.2	이흥규	김현만
2대	2004.3 ~ 2004.12	김영설	오승준
3대	2005.1 ~ 현재	차봉연	이정민

〈작성 : 당뇨병성 신경병증 소연구회 회장 차봉연, 간사 이정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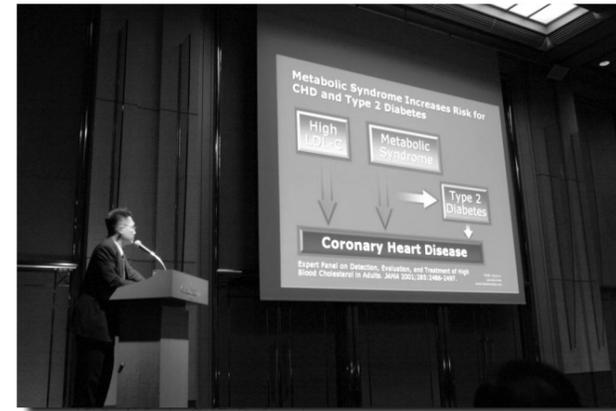
■ 대사증후군 소연구회 (Study group for metabolic syndrome)

1) 설립에서 현재까지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이라는 개념이 정립되고, 대사증후군이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병과 연관된 고위험군이라는 것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불과 10년 안팎의 일이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허갑범, 이흥규 교수를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이러한 질환의 개념을 이전부터 중요하게 생각하여 많은 연구를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대사증후군 환자의 특성을 밝히고 대사증후군 환자의 임상적인 outcome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 모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요구가 대두되었다.

처음 대사증후군 소연구회가 구체화하여 탄생하게 된 배경은 2004년 4월에 베를린에서 열린 제1회 International Congress on Prediabetes and the Metabolic Syndrome 학회에 대한당뇨병학회의 젊은 연구자 및 중진 연구자들이 참여한 것이었다. 이 행사는 세계 최초로 당뇨병 전단계와 대사증후군에 관한 내용만으로 개설된 국제 학회로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수천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다. 향후 당뇨병 전단계와 대사증후군이 임상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의미에 대하여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행사였다.



2006년 제19차 춘계학술대회 대사증후군 소연구회 심포지엄에서 권혁상 회원이 강연하는 모습. 대사증후군 소연구회는 우리나라 대사증후군 환자의 특성을 밝히고, 대사증후군으로 인한 임상적인 결과를 추적하는 다방면의 최신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당시 행사에 참여하였던 젊은 연구자들이 소연구회를 구성하여 연구 및 학술활동을 우리나라에서도 도모하기로 하였고, 여기에 허갑범, 이흥규, 이현철, 이문규, 장학철 회원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2005년 11월 정식으로 대사증후군 소연구회가 발족하였다. 고문으로 허갑범 회원, 초대 회장으로 이흥규 회원, 간사 장학철, 최성희 회원이 선임되었다. 초대 회원은 이현철, 이문규, 박경수, 이관우, 김성래, 안철우, 이창범, 박중열, 이인규, 조남한, 김대중, 오승준, 김인주, 김난희, 이기영, 윤현대, 임수, 목지오, 권혁상, 구본정, 박병현, 노정현, 박철영이었다.

2008년에는 2대 회장으로 이현철 회원이 선임되었고 간사로 임수, 최성희 회원이 현재 활동 중이다. 2007년 이후로 고려의대 서지아 회원, 연세의대 박종숙 회원 등이 추가로 회원 영입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대사증후군 소연구회는 매년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마다 외국 연자를 적극적으로 초빙하여 정기적인 심포지엄을 여는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2008년에 들어서는 대사증후군 소연구회 연구진들이 10개의 다기관 임상연구를 통하여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pitavastatin이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2) 구성목적

한국의 대사증후군 환자의 특성 연구와 대사증후군의 임상적인 결과를 추적하는 연구를 진행하며 정기 심포지엄과



2007년 제20차 춘계학술대회 대사증후군 소연구회 심포지엄에서 강연하고 있는 Boyd E. Metzger 교수(Northwestern University, USA). 대사증후군 소연구회는 매년 학술대회마다 외국 연자를 적극적으로 초빙하는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최신 연구 동향 및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3) 사업

현재 대사증후군 소연구회는 매년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마다 외국 연자를 적극적으로 초빙하여 정기적인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06년 제19차 춘계 학술대회에서는 'On the Asian Metabolic Syndrome Criteria'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외국 연자로 Stephen Colagiuri 교수(Prince Wales Hospital), Julian CN Chan 교수(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Tomoko Nakagami 교수(Tokyo Women's Medical University) 등이 초빙되었다. 2006년 제32차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The Proper Anthropometric Criteria of Metabolic Syndrome in Korea and Japan: Based on Fat CT Data Analysis'을 주제로 Hiroshi Kuriyama 교수(Osaka University, Japan)를 초빙하였다. 2007년 제20차 춘계 학술대회 심포지엄은 'Insulin Resistance and Metabolic Syndrome'를 주제로 하였고 Kitt F. Petersen 교수(Yale University, USA)와 Boyd E. Metzger 교수(Northwestern University, USA)를 초빙하였다. 2007년 제33차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Environmental factors and treatment targets of metabolic syndrome'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외국 연자로 Matthias Bluher 교수



2008년 제21차 춘계학술대회 자가관리 소연구회 심포지엄. 최경애 회원(한강성심병원)이 '당뇨병과 자가관리'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자가관리 소연구회는 교육자의 역량 강화 및 학술, 연구활동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2008년 제21차 춘계학술대회 메인 심포지엄이 '임신성 당뇨병'을 주제로 열렸다. 사진은 Dr. Lois Jovanovic가 'Modern management of GDM'을 강연하는 모습. 임신성당뇨병 소연구회는 임신성당뇨병이라는 특별한 상황의 당뇨병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University of Leipzig, Germany)가 초빙되었다.

2008년 제34차 추계 학술대회는 'The possible role of SIRT1 in Metabolic syndrome'이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다. 최신 기초지식과 임상적인 내용을 접목하는 흥미 있는 심포지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8년에 들어서는 대사증후군 소연구회 연구진들이 많은 토론과 준비를 통하여 직접 연구에 대한 프로토콜을 제안하여 연구비를 수혜하였고, 대사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다기관 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다(PROFIT 연구).

4) 전망

향후에도 대사증후군 소연구회는 우리나라 대사증후군 환자의 특성을 밝히고, 대사증후군으로 인한 임상적인 결과를 추적하는 다방면의 최신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정기적인 간담회와 심포지엄을 통하여 최신 연구 동향 및 지식을 습득하는 학구적인 소연구회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역대 및 현재 임원진

	활동시기	회장	간사
1대	2005 ~ 2007	이홍규	장학철, 최성희
2대	2008 ~ 현재	이현철	임수, 최성희

〈작성 : 대사증후군 소연구회 회장 이현철, 간사 최성희〉

■ 자가관리 소연구회(Study group for self-management of diabetes)

1) 설립에서 현재까지

최근 당뇨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노력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으며 특히 당뇨병 자가관리는 치료의 핵심이 되고 있다. 당뇨병 환자의 건강개선을 위해 자가관리 방법이 실생활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당뇨병 자가관리 교육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자가관리 소연구회는 이러한 당뇨병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자의 역량 강화 및 학술, 연구활동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교육간호사회, 당뇨교육사회복지사회, 당뇨교육영양사회의 세 분과의 교육자들이 모여 공동 연구회를 구성한 것이다. 자가관리 소연구회는 2007년 4월 이사회에서 자가관리 소연구회 활동 승인을 받았고, 유혜숙 회장, 심강희 간사를 중심으로 각 분과 9인의 위원들이 정기모임을 통해 공동 관심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연구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 분과는 각각 전문적인 영역의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있다.

2) 구성목적

당뇨병 교육자의 역량 강화 및 학술, 연구활동을 체계적

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교육간호사회, 당뇨교육사회복지사회, 당뇨교육영양사회의 세 분과의 교육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소연구회를 구성하였으며, 향후 우리나라 당뇨병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활동 목적이 있다.

3) 사업

- 춘·추계 학술대회 심포지엄 개최
- 워크샵 개최(3, 6, 9월)
- 정기모임 개최

제1차 자가관리소연구회 워크숍이 2008년 3월 27일 'Co-medical group의 활동 발자취'를 주제로 9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2008년 제21차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당뇨병 교육자의 역할'을 주제로 자가관리소연구회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자가관리소연구회는 제2차 자가관리 소연구회 워크숍을 2008년 5월 17일 8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했으며 송오금 회원(전 국립의료원 수석 영양사, 현재 미국 당뇨교육자)가 '미국 당뇨병 교육자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4) 전망

자가관리 소연구회는 당뇨병환자들이 자가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가관리 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당뇨병 교육자의 역량 강화와 연구, 학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우리나라 당뇨병 치료의 선진화에 앞장 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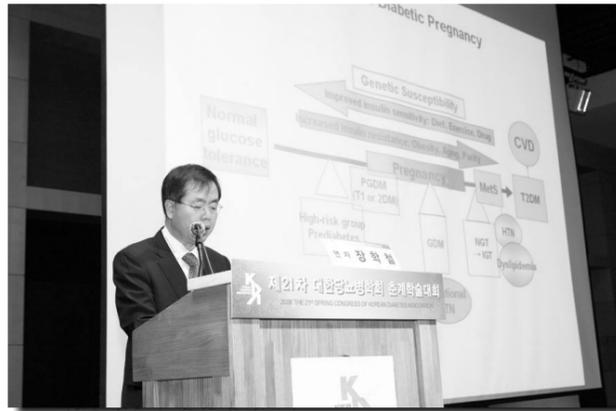
〈작성 : 자가관리 소연구회 회장 유혜숙, 간사 심강희〉

■ 임신성당뇨병 소연구회(Study group for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1) 설립에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임신성당뇨병은 전체 임신부의 2~7%로 보고되고 있으며 생활습관의 변화 및 여성의 결혼연령 및 임신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임신성당뇨병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산모에서 추후 제2형 당뇨병과 심장병의 위험도도 높아져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임신성당뇨병 산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비만과 당뇨병으로의 이환이 높아지는 등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이에 평소 임신성당뇨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해오던 대한당뇨병학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소연구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7년 춘계학술대회 때 임신성당뇨병의 세계적인 대가인 Dr. Metzger 방한을 계기로 임신성당뇨병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소연구회 발족 예비모임을 갖게 되었다. 이후 실무모임을 통하여 초대 회장으로 아



2008년 제21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장학철 교수가 'GDM in Korea'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주의대 조남한 회원, 간사로 포천중문의대 박석원 회원이 선임되어 2007년 6월 12일 이사회에서 임신성당뇨병 소연구회 발족이 승인되었다.

2) 구성 목적

본 소연구회는 임신성당뇨병의 역학, 치료, 관리 및 예후 등에 대한 연구를 도모하고 회원들 간의 교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임신성당뇨병 치료와 관리원칙을 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임신성당뇨병 환자와 그 자녀에 있어서 당뇨병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3) 사업

2008년 제21차 춘계학술대회 때 임신성당뇨병 심포지엄을 열고 Dr. Lois Jovanovic 교수가 'Modern management of GDM'을, 장학철 교수가 'GDM in Korea'를, 김문영 교수가 'Management of GDM; Obstetric aspect'를 강연했다. 2008년 춘계세미나에서는 Dr. Lois Jovanovic 교수가 'Insulin therapy in diabetes of pregnancy'를 강연했다. 한편, 2008년 6월 11~12일 캐나다 Pasadena에서 열린 'International workshop conference on GDM'에 장학철, 최성희 회원 등이 참석하기도 하였다.

임신성당뇨병 소연구회 연구자 모임은 연 4회 임신성당뇨병 관련 세미나 개최하고 있다.

4) 전망

임신성당뇨병 소연구회는 발족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이제 걸음마 상태의 연구회이지만 임신성당뇨병이라는 특별한 상황의 당뇨병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임신성당뇨병의 예방과 치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작성 : 임신성당뇨병 소연구회 회장 조남한, 간사 박석원〉



2006년 제11차, 2008년 제13차 당뇨병 연수강좌. 급격한 속도로 발전해 나가는 당뇨병 관련 지식을 의료진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2000년 수련위원회를 설립하였다.



8. 수련위원회 (Committee of Training)

1) 설립에서 현재까지

당뇨병학회는 급격한 속도로 발전해 나가는 당뇨병 관련 지식을 개원의, 전임의,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진에게 강좌를 통해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2000년 수련위원회를 설립하여 초대 이사에 최동섭 회원을, 초대 간사에 김두만 회원을 위촉하였다. 초대 위원으로 송영득, 박경수, 이병두, 전재석, 배학연, 이형우, 홍성관, 손석만 회원이 임직하였다.

이후 수련위원회는 개원가의 당뇨병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개원의를 위한 당뇨병 연수강좌'를 실시하였으며 (1999년 제4회 개원의 연수강좌까지는 학술위원회가 주관하였다), 전공의, 전임의를 위한 연수강좌인 Postgraduate Course of Diabetes (PG Course)를 2002년부터 실시하였고, 일차 진료의를 위한 출판사업 실시하는 등 학회에서 계획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사실 수련위원회의 첫 출발은 순탄하지 않았다. 수련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고자 하였던 '제5회 당뇨병 개원의 연수강좌'는 당초 2000년 4월 6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의약분업 사태로 인해 동년 10월 15일로 연기되었고 의약분업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이듬해인 2001년 3월 4일에 개최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이다.

의료계가 겪었던 가장 큰 폭풍인 의약분업 사태가 지난 후부터는 비교적 큰 문제없이 맑은 바 소임을 다하며 순항하고 있다. 제1대(2000-2001) 최동섭 이사, 김두만(2000), 장학철(2001) 간사에 이어 제2대(2002-2003) 차봉연 이사, 민경완 간사, 제3대(2004-2005) 유형준 이사, 정인경 간사, 제4대(2006-2007) 조용욱 이사, 민경완 간사를 거쳐 현재 제5대(2008-2009)는 이형우 이사와 조영민 간사가 수련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2) 구성목적

수련위원회는 개원의, 전공의 및 전임의를 대상으로 당뇨병에 관한 수련을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개원가의 당뇨병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개원의를 위한 당뇨병 연수강좌, 전공의, 전임의를 위한 연수강좌를 실시하고, 일차 진료의를 위한 출판사업 실시하는 등 기타 학회에서 계획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3) 사업

- 개원가의 당뇨병 교육 현황 파악
- 개원의를 위한 당뇨병 연수강좌 실시
- 전공의, 전임의를 위한 연수강좌 실시
- 일차 진료의를 위한 출판사업 실시



2007년 제33차 추계학술대회 연수강좌에서 박석원 회원(포천중문의대)이 '비만의 치료'를 강연하고 있다. 수련위원회는 춘·추계학술대회 기간 중 2시간 동안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강좌를 시행하고 있다.

- 기타 학회에서 계획한 사업

수련위원회에서는 상기 구성목적에 부합하여 연 1회 개의 연수강좌를 7월경에 실시하고 있다. 개원의 연수강좌는 1996년 7월 7일 시작되었으며 이때부터 1999년 제4회 개원의 연수강좌까지는 학술위원회가 주관하였다. 2003년 제8회부터는 명칭을 '당뇨병 연수강좌'로 바꾸어 2008년 제13차 당뇨병 연수강좌에 이르렀다.

또한 수련위원회는 춘·추계학술대회 기간 중 2시간 동안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강좌를 시행하고 있다.

심층강좌로는 주로 전임의 및 고년차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Postgraduate Course of Diabetes (PG Course)가 있다. 제1회 PG Course를 2002년 11월 16일 개최해 심도 깊은 당뇨병 임상 및 기초영역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였다. 제1회 PG Course에서는 인슐린 분비, 인슐린 저항성,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의 병태생리에 대한 강의를 있었다. 2003년 제2회 PG Course에서는 당뇨병 합병증의 병태생리, 미세혈관 합병증 및 대혈관 합병증에 대한 주제가 다루어졌고, 2004년 제3회 PG Course에서는 역학 연구, 인슐린 분비 및 작용, 당뇨병의 병태생리,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당시 Joslin Diabetes Center 단기 연수를 다녀온 중앙의대 김재택 회원과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의 이병완 회원이 연수 보고를 하였다. 이후 PG Course는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고, 매년 1회 10월 혹

은 11월경 시행하여 심도깊은 임상 및 연구 관련 당뇨병 관련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한편, 2008년 5월 3일에 의협창립 100주년 기념 제32차 종합학술대회에서 특별 세션을 구성하여 인크레틴 관련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바 있다.

4) 전망

당뇨병 관련 분야의 지식은 임상 및 기초 분야를 막론하고 엄청난 속도의 발전을 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관심 분야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당뇨병학의 발전을 이루는데 있어서 수련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회원들의 요구에 잘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여 수련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성실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역대임원

	활동시기	위원장	간사
1대	2000 ~ 2001	최동섭	김두만, 장학철
2대	2002 ~ 2003	차봉연	민경완
3대	2004 ~ 2005	유형준	정인경
4대	2006 ~ 2007	조용욱	민경완
5대	2008 ~ 2009	이형우	조영민

〈작성 : 수련위원회 이사 이형우, 간사 조영민〉



2007년 당뇨병주간 행사. 1992년부터 시작된 당뇨병주간은 대한당뇨병학회의 대표적인 대국민 홍보사업이다.



9. 홍보위원회 (Committee of Public Relations)

1) 설립에서 현재까지

당뇨병에 있어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학회 차원의 강력한 홍보 활동도 필요해졌다. 이에 당뇨병학회는 1992년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순현)의 명칭을 교육홍보위원회로 변경하고 당뇨병주간을 창설하는 등의 대국민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 초대 위원으로 신순현, 서은경, 김영설, 이광우, 임경호, 유형준, 최상진, 김태화 회원이 임직하였다.

이후 대국민 당뇨병 홍보활동을 더욱 확대 강화하기는 요구가 늘어나자 학회는 2002년 교육홍보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홍보위원회(이사 오연상, 간사 고경수)로 분리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 분리된 홍보위원회는 당뇨병주간 행사, 학회 소식지 발간, 미디어 활동 등의 업무를 시작했다. 초대 홍보위원회는 총 33인의 인원으로 업무를 시작하였다.

2004년~2005년은 오연상 이사가 업무를 지속하면서 고경수 부위원장, 김성래 수석간사 등 27인의 홍보위원이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유형준 이사, 고경수 간사를 중심으로 15인의 홍보위원이, 2008년부터는 차봉수 이사, 김철식 간사 및 15인의 홍보위원이 홍보위원회를 맡아 '당뇨병의 날' 행사, 무료 혈당 측정, 당뇨병 걷기대회, 당뇨박람회, 대국민 강좌, 신문·방송매

체 활용, 병원 별 교육 및 당뇨관련 출판물 발간 등의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2) 구성목적

홍보위원회는 대한당뇨병학회의 학술, 간행, 수련, 교육, 연구 봉사활동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계획, 토의,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의사, 간호사, 영양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되어있다.

3) 사업

① 당뇨병 소식지 제작

1994년에 소식지를 창간, 그 해에 2차례 소식지를 발행했고 1995년도부터 현재까지는 1년에 4차례 발행하여 전 회원에게 발송하고 있다. 창간 당시의 목적은 당뇨병에 대한 최신 정보를 회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학회의 여러 업무(학술, 간행, 수련, 교육, 연구 봉사활동 등)에 대한 소개, 회원 동정, 중요 행사 등에 대한 내용을 실어 회원 간의 정보교환, 참여유도 및 유대강화를 하는 것으로 목적이 바뀌었다. 소식지는 기존 8면이었던 것이 2008년 증면되어 48, 49호는 12면, 50호(2008년 3호)는 16면으로 발간되었다.



2007년 당뇨병주간 기자간담회 장면.



『당뇨병 무엇이 궁금하세요』는 학회 홈페이지 Q&A에 문의되었던 2천여 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발간한 책이다.

② 당뇨병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일반인들의 당뇨병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가 분야를 나누어 전문 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2002년 12월부터 홈페이지 Q&A에 문의되었던 2천여 개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총 정리하여 『당뇨병 무엇이 궁금하세요』를 2007년 발간하였다.

③ 당뇨병 관련 행사 홍보 및 지원

당뇨주간 행사, 대국민 공개강좌, 학회 중 홍보사업, 기자간담회, 각종 학회 기념사업 홍보 등을 시행하고 있다.

④ 기획사업

질병관리본부와 심뇌혈관질환 공동 홍보대책회의 협조 업무 시행 중

⑤ 기타

당뇨병 홍보 워크샵, 학회 부스 운영, 당뇨버스 운영, 당뇨박람회, 학회기록·문서·동영상 자료정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4) 전망

지속적으로 커져가는 대한당뇨병학회의 업무들에 비례하

여 홍보위원회의 조직 및 업무 또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대국민 당뇨병 홍보 사업은 질병의 예방 및 조기진단을 위해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홍보위원회는 당뇨병 없는 세상을 위해 앞으로도 홍보업무에 아낌없이 힘을 쏟을 것이다.

역대임원

	활동시기	위원장	간사
1대	1992 ~ 1995	신순현	홍성관
2대	1996 ~ 1997	이홍규	홍성관
3대	1998 ~ 1999	유형준	남홍우
4대	2000 ~ 2001	유형준	남홍우
5대*	2002 ~ 2003	오연상	고경수
6대	2004 ~ 2005	오연상	고경수**
7대	2006 ~ 2007	유형준	고경수
8대	2008 ~ 2009	차봉수	김철식

* 2002년부터 교육홍보위원회에서 처음 홍보위원회로 독립 신설

** 부위원장

〈작성 : 홍보위원회 이사 차봉수, 간사 김철식〉

10. 국제협력위원회 (International Liasion Committee)

1) 설립에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당뇨병의 유병률과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당뇨병학회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여러가지 당뇨병 연관 사업을 구상하여 당뇨병환자 교육, 당뇨병 관련 건강 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수련, 당뇨병의 당면과제에 대한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당뇨병학회는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오래 전부터 당뇨병에 대한 여러 가지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던 해외 당뇨병 관련 학회들의 최신 정보와 경험을 배우고 동시에 당뇨병학회의 경험과 능력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2004년 국제협력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어 윤건호 교수가 초대 이사에 위촉되었고 이정민, 남문석, 김동준, 원규장, 박강서, 박정규, 최경묵, 조영민 위원이 임직되어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했다. 국제협력위원회는 처음부터 대외적으로 활발한 사업을 벌이지는 못하였지만 그 동안 당뇨병학회가 관계를 했던 해외 학회, 해외 저명 인사들과의 교류를 시작하였고, 국제 단체와의 접촉 창구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한 기초를 구축했다. 또한 세계당뇨병연맹 서



2008년 뉴질랜드 웰링톤에서 있었던 IDF-WPR 대회에서 대한민국 부산이 2010년 IDF-WPR 대회의 개최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사진은 IDF-WPR 대회가 열릴 부산 벡스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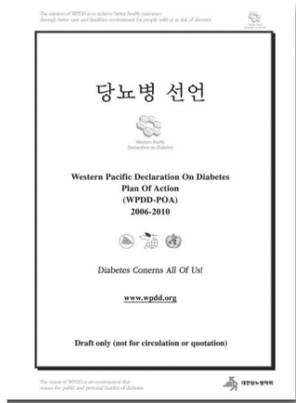
태평양지부(IDF-WPR) Congress 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이 지역에서 당뇨병학회의 위상을 높였고 당뇨병 관련 사업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위치에 올랐다.

2006년 국제협력위원회의 2대 이사로 이문규 교수가 위촉된 후 1대 이사였던 윤건호 교수를 포함하는 2대 국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처음부터 진행해오던 대외적인 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활동했다. 이런 활동의 결과로 2008년 뉴질랜드 웰링톤 IDF-WPR Congress 에서 대한민국이 2010 IDF-WPR Congress 개최국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

당뇨병학회는 이제 한국 내의 당뇨병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국내학회가 아니라 서태평양지역의 당뇨병 관련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국제적인 위상을 가진 학회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구성목적

국제협력위원회는 국제적 교류를 통하여 당뇨병학회의 세계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당뇨병학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로 IDF, IDF-WPR, JDS 등 해외 당뇨병 관련 학회들과 해외 저명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당뇨병학회가 세계적인 학회로 발전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07년 국제협력위원회가 번역, 발간한 「IDF-WPR WPDD POA」. 국제협력위원회는 국제적 교류를 통하여 당뇨병학회의 세계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2004년 설치되었다.

3) 사업

- 당뇨병학회의 국제 접촉 창구로서의 역할 수행
- 당뇨병 관련 해외 저명 인사들과의 유대관계 유지
- 해외 타 당뇨병학회와의 교류 증진
- 기타 국제 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

2004년 국제협력위원회가 신설된 후 네 가지 정도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우선 해외협력인사 관리와 유대관계 유지를 위하여 관리 대상 해외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5~10년간 당뇨병학회의 초청 연자, IDF-WPR 관계자, 일본, 중국 당뇨병학회의 임원, 한일당뇨병학회 참석자들, ICDM의 각 나라 대표, 타 학회나 제약회사에서 초청된 당뇨병 관련 강사나 연구자들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였다.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당뇨병학회 회장, 이사장, 국제협력위원회 이사를 발송인으로 하는 공식적인 신년 인사 카드를 발송하는 것으로 첫 사업을 시작하였다.

첫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홍보위원회와 협력하여 당뇨병학회의 국제 접촉 창구로서 학회 영문 홈페이지 제작했고 해외 홍보사업을 시작하여 우리 학회의 일정이나 연간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 메일로 발송했으며, 각 나라들의 당뇨병 관련 프로그램과 국가간의 공동연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면서 타 학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한 노력중의 하나로 IDF나 IDF-WPR에서 보내오는 최신 당뇨병 관련 논문이나 소식지도 한글로 번역하여 홍보하였고 2007년에는 IDF-WPR WPDD POA를 번역하여 책자로 발간하였다.

국제회의와 관련하여 2005년부터는 IDF-WPR General Council meeting에 국제협력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우리나라 당뇨병의 실태를 알리고 국제적인 신경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당뇨병학회의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한일당뇨병학회를 위한 organizing committee 회의에도 참석하여 한일당뇨병학회가 좀 더 큰 위상을 갖는 학술대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활동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을 토대로 2008년에는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있었던 IDF-WPR Congress 및 General Council meeting 에서 대한민국 부산이 2010 IDF-WPR Congress 의 개최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당뇨병학회의 국제적인 위상을 한번 더 보여주게 되었다.

4) 전망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질병으로 당뇨병의 예방, 치료, 관리 등의 다각적인 당면과제에 대하여 대한당뇨병학회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다른 국가의 당뇨병 관

련 학회들이나 국제 당뇨병 관련 학회들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하여 당뇨병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과 정보 교환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 당뇨병학회 산하 국제협력위원회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2010 IDF-WPR Congress의 개최 성공을 통하여 더 많은 국제규모의 학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기반을 닦을 것이며, 당뇨병 관련 최신 정보와 연구를 공유하고 당뇨병학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이다.

역대임원

	활동시기	위원장	간사
1대	2004 ~ 2005	윤건호	이정민
2대	2006 ~ 2007	이문규	김성래, 이정민
3대	2008 ~ 2009	이문규	김성래

〈작성 : 국제협력위원회 이사 이문규, 간사 이정민〉



진단소위원회는 2007년 제33차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 당화혈색소 표준화의 필요성과 진단검사의학회에서 survey한 우리나라 당화혈색소 측정현황을 발표하였다. 사진은 '당화혈색소 표준화의 필요성'을 강연하고 있는 이은정 회원(성균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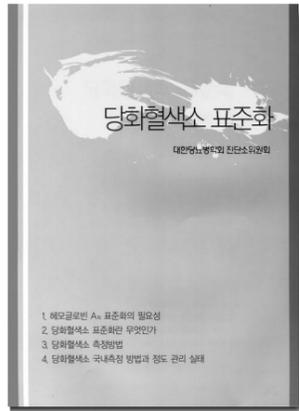
11. 진단소위원회 (Committee on the diagnosis and classification of diabetes mellitus)

1) 설립에서 현재까지

당뇨병 관리에 있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진단기준의 확립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1999년 '한국인 당뇨병 조사위원회' 아래 진단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 손호영 회원을 위촉하고 2년간 한시적인 활동을 하였다. 위원으로 이기업, 윤건호, 장학철, 박용수, 김인주, 김두만, 김철희, 김석일, 하승우 회원이 임직하였으며, 우리나라 역학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진단기준에 대한 자료분석 작업을 하였다.

2004년 대한당뇨병학회의 상설기구로 진단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진단소위원회는 박경수 위원장 시기(2004~2005년)에 우리나라에 맞는 당뇨병, 공복혈당장애, 임신성 당뇨병의 진단기준 확립과 당뇨병 선별검사의 기준 혹은 발병 위험도 알고리즘 개발사업을 하였다.

2006년 3대 성연아 위원장 시기에는 한국인의 실정에 맞는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확립과 우리나라 고유의 당뇨병 진단 지침서 마련을 계획하였고, 2007년 당뇨병의 진단 및 분류 권고안을 완성하여 문헌화하였다. 또한 국내 당화혈색소 측정의 문제를 인식하고 당화혈색소 표준화 작업을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홍보를 계획했다.



2008년 진단소위원회는 진단검사의학회의 당화혈색소 표준화 TFT, 정도관리학회와 함께 당화혈색소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사진은 2008년 21차 춘계학술대회 때 배포한 『당화혈색소 표준화』 보고서.

2008년 현재 성연아 위원장 외 9명의 위원이 진단소위원회를 맡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구성목적

진단소위원회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국내 진단기준을 확립하여 당뇨병 관리의 기본으로 삼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이다.

3) 진단소위원회 사업

- 당뇨병, 공복혈당장애, 임신성 당뇨병 등의 진단기준 확립
- 당뇨병 선별검사의 기준 혹은 발병 위험도 알고리즘 개발
- 한국인 실정에 맞는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확립
- 우리나라 고유의 당뇨병 진단 지침서 마련
- 당화혈색소 표준화 작업

1999년 진단소위원회가 신설된 후, 당시 논란이 되고 있던 당뇨병 진단기준과 한국인과의 적합성 관계 및 한국인에 맞는 새로운 진단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국내외 의학 자료들(강남성모병원, 삼성의료원, 서울중앙병원, 이대목동병원)을 모아서 통일된 프로토콜 하에서 재분

석하여 제27차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다.

2004년에는 기존 역학연구 자료 중 지역사회 기반 연구(정읍, 목동, 연천, 안성, 청주, 삼성제일(GDM) 코호트)를 선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당뇨병’, ‘공복혈당장애’, ‘임신성 당뇨병’의 진단기준을 확립하고, 당뇨병 선별검사의 기준 혹은 발병 위험도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목동, 안산, 연천, 정읍 지역사회 연구를 종합 분석하여 경구포도당부하 검사를 통한 식후 2시간 혈당 200 mg/dl 이상을 당뇨병으로 진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당뇨병 진단에 가장 타당한 공복혈당 수치를 분석하여 2005년 제30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지역사회 역학연구에서의 당뇨병의 진단기준 분석’을 발표하였다.

2006년에는 한국인 실정에 맞는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 확립을 목표로 ‘대사증후군에 관한 국내자료 분석과 통계 기법’을 주제로 역학소위원회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후 우리나라 고유의 당뇨병 진단 지침서 마련을 위해 ‘당뇨병 진단 및 분류 권고안 확정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고,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인 당뇨병 진단 및 분류에 관한 가이드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진단소위원회는 2007년 사업으로 ‘당화혈색소의 전국적 표준화 작업을 위한 토대 마련’을 계획하고, ‘당뇨병의 진단 및 분류 권고안’을 완성하여 문헌화하였다. 우리나라는 당화혈색소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정도관리 항목에도 빠져있어 이의 심각성을 인식한 진단소위원회는 대한진단

검사의학회와 함께 당화혈색소 표준화 작업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는 당화혈색소 표준화의 필요성과 진단검사의학회에서 survey한 우리나라 당화혈색소 측정현황을 발표하였다. 또한 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여, 당뇨병학회와 진단검사의학회가 공조하여 지속적인 당화혈색소 표준화 및 외부 정도관리 survey가 필요하며 당뇨병 학회 내에서도 지속적인 당화혈색소 표준화를 관리하는 소위원회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2008년에는 진단검사의학회의 당화혈색소 표준화 TFT, 정도관리학회와 함께 당화혈색소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임상의를 대상으로 당화혈색소 표준화에 대한 홍보를 계획하였다.

4) 전망

당뇨병 관리에 있어 정확한 진단기준의 확립과 함께 당뇨병 관리 표준화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진단소위원회의 역할은 아주 크다. 진단소위원회는 향후 변화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진단기준을 정립해 나가고, 타 학회와 함께 당뇨병 관리 표준화에 힘 쓸 것이다.

역대임원

	활동시기	위원장	간사
1대	1999 ~ 2000	손호영	윤건호
2대	2004 ~ 2005	박경수	오지영
3대	2006 ~ 2007	성연아	오지영
4대	2008 ~ 2009	성연아	이혜진

〈작성 : 진단소위원장 성연아, 간사 이혜진〉



2007년 제21차 춘계학술대회 치료소위원회 심포지엄이 "blood glucose in type 2 diabetes, the lower the better or the worse?"를 주제로 열렸다. 박태선 회원(전북의대 내과)이 'What are the advantages of tight blood glucose control?'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12. 치료소위원회 (Committee on the treatment of diabetes mellitus)

1) 설립에서 현재까지

치료소위원회는 당뇨병 치료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치료에 도움이 주고자 '한국인 당뇨병 조사위원회' 산하의 2년 기한 한시 위원회로 1999년에 만들어 졌다. 위원장으로 김광원 회원이, 간사로 이문규 회원이, 그리고 초대 위원으로 박중열, 박경수, 김현만, 이인규, 오태근, 배학연 회원이 활동하였다. 1999년도 사업으로 11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병원 별 100례 씩, 총 1196례를 연구 프로토콜에 맞춰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한국 당뇨병 환자의 치료 현황을 2000년에 발표하였다.

그 후 2004년 치료소위원회는 상시 기구로써 다시 구성되었다. 2대 위원장은 윤건호 회원이 맡았으며, 간사는 권혁상 회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이인규, 우정택, 박태선, 민경완, 유순집, 남문석, 이원영, 안유배, 김민선 회원이 활동하였다.

치료소위원회는 2004년 8월 27일 제1차 워크숍을 개최하여, 당뇨병환자 치료에 대한 컨센서스 개발과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초치료 당뇨병환자의 치료 권고안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내 자료의 부족이 심각한 관계로 치료현황에 대하여 이원영 회원이, 당뇨병환자의 고혈압

치료 현황에 대하여 이인규 회원이 조사작업을 하기로 했고, 그 결과를 2004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는데 이원영 회원의 최근 진단된 내당능 장애와 당뇨병환자에 대한 치료경향과 윤건호 회원의 당뇨병환자에 대한 치료 권고안 도출이 그것이다. 이때가 우리나라 당뇨병환자의 치료 권고안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2004년 하반기부터는 치료받지 않은 제2형 당뇨병환자의 초치료 선택을 위한 연구자 중심의 연구 기획을 시작하였다.

치료소위원회는 당뇨병치료 컨센서스 확립을 위한 2차 워크숍을 2005년 2월 26일 개최하였으며, 동년 4월 30일 제2형 당뇨병환자의 약물치료 권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제2형 당뇨병환자의 경구단독요법과 병합요법에 대해 치료소위원회가 도출해낸 각종 컨센서스를 보고, 의견을 받기 위한 자리로 발전적인 많은 지적과 격려가 있었다. 또한 동년 9월 2일 열린 3차 워크숍에서는 인슐린 치료와 인슐린 병합요법에 대한 컨센서스를 확립하였다. 9월 24일 4차 워크숍에서는 그 동안 토의되었던 모든 내용들을 총합하여, 경구약제 다독, 병합 및 인슐린 치료와 관련된 컨센서스를 최종 점검, 정리하여 향후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2006년부터는 우정택 회원이 위원장을, 오승준 회원이 간사를 맡아 이전 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의 맥을 이어나갔다. 2006년에는 당뇨병환자의 이상지혈증 치료를

위한 권고안 마련을 위하여 춘계학술대회에 Phillip Home 교수를 초청해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동년 7월 8일에는 당뇨병환자의 이상지혈증 치료 권고안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고, 그 결과를 2006년 춘계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 소개하고 의견을 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2007년 5월 26일에는 당뇨병환자의 고혈압 치료를 위한 권고안에 대한 워크숍을 열었으며, 2007년에 가장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 로시글리타존에 대해서는 춘계학술대회에서 "경구혈당강하제는 심혈관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2007년 여러 위원회들과 공동으로 제작한 대한당뇨병학회 치료권고안 제작에서 치료소위원회는 당뇨병 약물치료, 이상지혈증과 고혈압 치료에 관한 부분을 맡아서 작성하였다.

2008년 현재 우정택 치료소위원회 위원장과 오승준 간사 외 18명의 위원이 치료소위원회를 맡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구성목적

치료소위원회는 당뇨병 치료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한국인 당뇨병 표준치료를 개발, 발전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당뇨병 치료의 현 실상을 조사하며 치료와 관



2007년 제33차 춘계학술대회 치료소위원회 심포지엄 "경구혈당강하제는 심혈관 질환발생에 영향을 미치는가?"에서 패널 토의를 하는 장면. 치료소위원회는 학회 회원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이 당뇨병을 치료함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치료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련된 연구 활성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3) 사업

- 당뇨병 치료의 현 실상 조사
- 당뇨병 치료에 관련된 자료 수집
- 당뇨병 표준치료 개발 및 발전
- 당뇨병 치료에 대한 연구 활성화 유도

궁극적으로 한국인에 맞는 당뇨병 표준치료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

4) 전망

당뇨병 및 당뇨병 관련 합병증을 치료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 분야의 전문가뿐 아니라, 전반적인 보건을 맡고 있는 일반의와 같은 비전문인력에게 표준치료 및 치료 권고안은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더불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대한당뇨병학회 치료소위원회는 학회 회원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이 당뇨병을 치료함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치료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역대 임원

	활동시기	위원장	간사
1대	1999 ~ 2000	김광원	이문규
2대	2004 ~ 2005	윤건호	권혁상
3대	2006 ~ 2007	우정택	오승준
4대	2008 ~ 2009	우정택	오승준

〈작성 : 치료소위원장 우정택, 간사 오승준〉

13. 역학소위원회 (Committee on the epidemiology of diabetes mellitus)

1) 설립에서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당뇨병에 대한 역학적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9년 신순현 회장 재임 시에 '한국인 당뇨병 조사위원회' 산하 역학소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위원장으로 이현철 회원, 부위원장으로 유형준 회원, 간사로 송영득 회원, 위원으로는 이병두, 홍성관, 성연아, 박석원, 김용성, 서 일, 백홍선 회원이 임직하였다.

이후 김광원 이사장 재임시절인 2002년부터 2003년 말까지는 학회에서 직접 경기도 지역 역학조사 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역학조사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어 이사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조남한 위원이 간사로 활동하였다.

이현철 이사장 재임시인 2004년부터는 대한당뇨병학회 상설기구로 역학소위원회가 설치되어 백세현 위원장이 2005년 말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였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이인규 위원장이 활동을 하였으며, 2008년 현재 박용수 위원장, 박석원 간사 외 22명의 위원이 역학소위원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구성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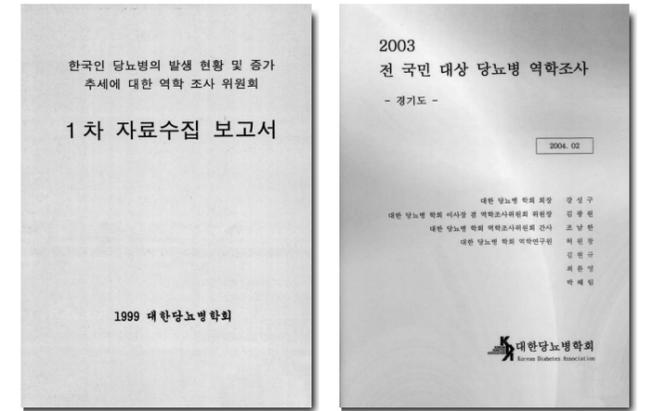
역학조사를 통한 당뇨병 환자의 실태 파악 및 발병 특성을 규명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사업

- 당뇨병 역학과 관련된 자료 수집
- 당뇨병 연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당뇨병 역학과 관련된 연구 기반조성 및 활성화 유도
-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책자 및 홍보자료 개발

주요 활동사항으로 위원회 설립 원년인 1999년에 1단계로 기존 역학자료를 취합하여 자료수집 보고서를 제출하고 추계학술대회에서 유형준 교수가 정리,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는 국내 당뇨병 역학관련 연구논문, 종설 등 총 50여 편(400쪽)을 정리한 것으로 150 권을 인쇄하여 회원들이 향후 역학 연구에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2004년도 2월 20일에는 '2003년도 전국민 대상 당뇨병 역학조사' 결과를 아주대 조남한 교수가 발표한 바 있으며 결과를 요약하여 학회지 『당뇨병』에 특별기고 형식으로 게재하였다. 2005년에 심평원과 공동으로 당뇨병 역학조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심평원과 공동으로 당뇨병 역학 연구 심포지움을 개최한 바 있다. 2006년도에는 역학



1999년 기존 역학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한 1차 자료수집 보고서와 '2003년 전국민 대상 당뇨병 역학조사' 보고서. 역학조사위원회는 설립 초기부터 직접 역학조사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및 진단소위원회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역학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4) 전망

역학소위원회는 설립 초기부터 직접 역학조사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당뇨병을 국민병으로 인식하도록 전국민적 계몽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학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당뇨병이 사망원인의 네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역학소위원회의 활동은 더욱 중요해지리라고 생각된다.

역대 임원

	활동시기	위원장	간사
1대	1999 ~ 2000	이현철	유형준
2대	2002 ~ 2003	김광원	조남한
3대	2004 ~ 2005	백세현	박이병
4대	2006 ~ 2007	이인규	안유배
5대	2008 ~ 2009	박용수	박석원

〈작성 : 역학소위원장 박용수, 간사 박석원〉



대한당뇨병학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 대한당뇨병학회 인터넷관리소위원회는 당뇨병과 대한당뇨병학회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999년 대한당뇨병학회 홈페이지 개통 1주년 기념식 장면. 1998년 6월 22일 홈페이지를 개통했다.



2007년 제 4회 젊은 당뇨인을 위한 2030 캠프. 2030 캠프는 청년기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극복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2004년 시작되었다.

14. 인터넷관리소위원회 (Committee for internet based management of diabetes)

1) 설립에서 현재까지

대한당뇨병학회의 홈페이지는 1998년에 처음 개설된 후, 홍보위원회의 관할 아래에서 관리되어 오다가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각 위원회의 인터넷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대한당뇨병학회 내에 인터넷관리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초대위원장으로 김두만 회원, 초대위원으로 송영득, 조영중 회원이 임직하여 인터넷관리소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2005년에는 인터넷 논문 투고 시스템이 신설되었으며, 박태선 위원장 재직 시인 2006년에는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을 재구성하여 학회회원과 일반회원에 필요한 서비스 내용을 분리하였고, 자가진단 프로그램, 당뇨병교육 컨텐츠를 추가하고 상담코너를 일반 당뇨인이 이용하기 쉽게 개선하고 유익한 내용을 강화하였다. 또한 학회회원을 위하여 학술행사 안내와 학회지 검색 방법을 개선하고 각 위원회에서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2008년에 새로이 홈페이지의 구성과 내용을 개선, 보충하였고, 각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인터넷을 통해 홍보 지원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회의가 시범적

으로 시행 중이다. 2008년 현재 오승준 위원장과 노정현 간사 외 8명의 위원이 인터넷관리소위원회를 맡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구성목적

인터넷관리소위원회는 당뇨병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각 위원회의 인터넷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3) 인터넷관리소위원회 사업

-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유지 및 개선
- 간행위원회와 협조하여 인터넷 논문 투고 시스템 유지 및 개선
- 각 위원회의 인터넷 관련 업무 지원 및 조정
- 기타 학회에서 의뢰된 사업

4) 전망

급속도로 확산되는 컴퓨터의 보급과 각종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달, 정보의 상업화 등에 힘입어 인터넷은 정보 공유와 홍보에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홈

페이지 역시 회원들의 정보 공유와 홍보의 도구로서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 인터넷관리소위원회는 회원들에게 당뇨병과 대한당뇨병학회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들이 학회 활동 중 인터넷과 관련한 업무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다.

역대임원

	활동시기	위원장	간사
1대	2005	김두만	송영득, 조영중
2대	2006 ~ 2007	박태선	김종화
3대	2008 ~ 2009	오승준	노정현

〈작성 : 인터넷관리소위원장 오승준, 간사 노정현〉

15. 캠프소위원회 (Committee for KDA diabetes Camp)

1) 설립에서 현재까지

대한당뇨병학회는 청년기 당뇨병환자 대상 당뇨병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에게 올바른 당뇨병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당뇨병 극복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20~30대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젊은 당뇨인을 위한 2030 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2004년 7월 제1회 2030 캠프가 경기도 이천 그린화재연수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이후 매년 여름 20~30대 당뇨인을 대상으로 하는 2030 캠프가 실시되고 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대한당뇨병학회 내 교육위원회에서 캠프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2030캠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8년 1월 대한당뇨병학회 내에 당뇨캠프를 전담하는 캠프소위원회가 신설되었다.

2008년 현재 정춘희 위원장과 노정현 간사 외 21명의 위원이 캠프소위원회를 맡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구성목적

캠프소위원회는 2030 캠프를 개최하기 위하여 설치되었



2008년 제 5회 2030 캠프. 캠프소위원회는 청년기 당뇨인들이 올바른 당뇨병 관리에 대한 지식을 얻고 치료 의욕을 고취하여 원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캠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다.

다. 캠프소위원회는 20~30대 당뇨인을 대상으로 하는 당뇨캠프를 하계 및 동계에 개최한다.

스태프의 교육 및 머지 않은 미래에 국제 2030 당뇨캠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한다.

〈작성 : 캠프소위원회 위원장 정춘희, 간사 노정현〉

3) 캠프소위원회 사업

- 하계 및 동계 2030 당뇨캠프 개최
- 당뇨캠프 워크샵 개최
- 국내 타 당뇨캠프 현황 파악 및 지원사업

4) 전망

20~30대는 개인의 미래를 준비하고, 처음 직장을 구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결혼과 출산을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당뇨병을 앓는 경우 사회생활과 결혼 생활을 원만히 유지하고 당뇨병을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20~30대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평균 여명에 대비하여 합병증 관리 차원에서 비용 효과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대한당뇨병학회 캠프소위원회는 청년기 당뇨인들이 올바른 당뇨병 관리에 대한 지식을 얻고 치료 의욕을 고취하여 원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캠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다. 향후 당뇨병 캠프 가이드북을 만들어 국내 당뇨병 캠프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캠프

제2장 | 지회

1. 영남지회

1) 설립에서 현재까지

대한당뇨병학회 영남지회는 1985년 창립된 영남 당뇨병-내분비학회에서 그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대한당뇨병학회 회원은 물론 대구·경북지역과 부산·경남지역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약사 및 그 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회사업가 등 당뇨병과 관련된 학술활동이나 임상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1984년 11월 부산의대 김동수교수, 김용기 교수, 인제의대 강창일 교수, 고신의대 박요한 교수, 대구 운영길 내과의원장, 대구파티마병원 김원호 과장, 그리고 경북의대 김보완 교수가 협의하여, 영남지역에서 내분비대사학을 전공하는 얼마 되지 않는 회원들이라도 뜻을 같이 하여 정기적인 학술 모임을 가지기로 의견을 모았다.

1985년 5월 영남 당뇨병-내분비학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에 부산의대 김동수 교수, 총무이사에 부산의대 김용기 교수를 선출하였다. 초창기에는 각 대학의 교수들이 장기간의 해외 연수 등 결원이 많아 일년에 두 차례 모임조차 힘들었다.

그러나 부산 봉생병원 구대영 과장, 보훈병원 이상용 과장, 침례병원 손성표 과장, 메리놀병원 최신영 과장, 마산 삼성병원 권삼 교수, 포항성모병원 이찬수 과장 등 소수였

지만 열정을 가진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명맥을 유지하던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참여 회원이 늘어났다. 각 대학별로, 경상의대 정순일(1984), 계명의대 이인규(1986), 영남의대 이형우(1989), 동아의대 김덕규(1990), 부산의대 김인주(1992), 대구가톨릭의대 손호상(1993), 경북의대 하승우(1994), 고신의대 최영식(1996), 인제의대 박정현(1996), 경북의대 김정국(1997), 울산의대 김영일(1998), 동국의대 유석동(1999) 등 신입 교수들뿐만 아니라 각 병원의 전임의들이 신규 회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학회의 규모가 커져갔다.

1992년부터 매월 대구와 부산에서 번갈아 정례 집담회를 개최하며 내분비질환 증례토의 및 당뇨병 관련 최신지견을 발표하는 한편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였다. 뒤늦게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지역별 지회를 두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영남지회의 역할도 맡게 되었다. 1990년부터 매년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당뇨병과 내분비질환에 대한 최신지견을 요구하는 개원의들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지견을 공유하고자 1998년부터 매년 3월초 대구와 부산에서 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02년 6월 호남지역의 당뇨병-내분비학회와 함께 제 1회 영-호남 당뇨병대사학회를 개최한 이후 연간 2차례의 정기적인 심포지엄을 열면서 대구와 부산을 오가며 개최하던 영남당뇨병-내분비학회 정기 집담회는 중단하였고 현재



당뇨병에 대한 최신지견을 요구하는 개원의들의 요구가 늘어나 1998년부터 매년 3월초 대구와 부산에서 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199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당뇨병주간 걷기대회 행사. 영남지회는 그간 지역사회의 당뇨병 연구와 교육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지역사회의 당뇨인과 가족들의 교육과 치료에도 힘써 왔다.



1991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 16회가 진행된 소아건강캠프. 대구·경북지역의 제1형 당뇨병 어린이들을 위한 자리로 현재는 부산경남지역의 어린이도 일부 참여하고 있다.



영남지회는 2003년 대구시 달성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2차 역학조사는 2008년 8월 실시하였다. 사진은 역학조사하는 장면.

는 부산 경남지역과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매월 1회 정기 집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정순일 회장(경상의대)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지역을 윤지성 총무(영남의대)가, 부산·경남지역을 최영식 총무(고신의대)가 맡아 사업을 꾸려가고 있다.

2) 구성 목적

영남지회는 당뇨병환자를 관리하는 교육자들에게 최신 정보와 올바른 치료방법을 교육하여, 습득한 지식을 당뇨인들에게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게 한다. 또한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여 여러 활동을 진행할 때 긴밀한 협조를 유도한다.

3) 사업

(1) 춘계 연수강좌

1999년부터 매년 1회 당뇨병 교육자와 개원의를 대상으로 당뇨병의 치료법, 합병증 관리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대구와 부산에서 각각 연수강좌를 시행하고 있다. 2008년 제10회 개원의 연수강좌를 개최하였다.

(2)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

1990년 초부터 매년 1회 당뇨병 교육자에게 새로운 치

료법 등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당뇨인의 교육과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다.

(3) SDM

당뇨병의 진료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 대상 교육프로그램인 단계별 당뇨병 관리(SDM)을 대한당뇨병학회와 협력하여 2000년부터 매년 소도시 중심으로 연3~4회 실시하고 있다.

(4) 당뇨캠프

1991년 윤영길(운영길내과 원장), 김보완(경북의대 내과), 김홍식(동산의료원 소아과), 고철우(경북의대 소아과), 이형우(영남의대 내과), 이인규(동산의료원 내과) 회원이 협의하여 대구·경북지역의 제1형 당뇨병 어린이들을 위한 '하계 건강캠프'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1992년 대구시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팔공산에 위치한 대구교육원에서 시작한 캠프는 경북대병원, 동산의료원, 영남대의료원 그리고 대구가톨릭병원의 내과와 소아과에서 순환제로 주최하여 현재까지 총16회, 매년 4박 5일 동안 실시하였다. 참여 어린이가 매년 늘어나고 캠프 내용도 알차게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경남지역의 제1형 당뇨병 어린이도 일부 참여하고 있다.

부산·경남 지역은 2004년부터 성인당뇨 캠프를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다.

(5) 당뇨인 걷기대회

1996년부터 10월 당뇨병주간에 당뇨인과 가족, 일반인이 당뇨병 교육자와 함께하는 걷기대회 행사를 실시하였다. 걷기대회를 통해 당뇨인들은 평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고 행사를 준비하는 교육자들도 서로 긴밀한 협조와 친목을 다질 수 있었다.

(6) 당뇨병주간 공개강좌

일반인을 대상으로 당뇨병 진단, 치료법, 합병증 관리 등 전반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당뇨병 공개강좌를 대한당뇨병학회와 보조를 맞추어 매년 11월 당뇨병주간에 시행하고 있다.

(7) 당뇨병 역학조사 및 당뇨병 관리 사업

2003년 대구시 달성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건 당국 및 개원과 협력하여 당뇨병 관리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2차 역학조사는 2008년 8월 실시하였다.

4) 전망

대한당뇨병학회 영남지회는 그간 지역사회의 당뇨병 연구와 교육, 교육자 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지역사회의 당뇨인과 가족들의 교육과 치료에도

힘써 왔다. 앞으로도 교육자간의 정보 공유, 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더욱 발전하는 지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작성 : 영남지회 총무 윤지성, 최영식)



1996년 제5회 호남지역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 및 호남지회 창립총회. 호남지회는 호남지역에서의 당뇨병관리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이 지역에서의 역할이 매우 크다.

2. 호남지회

1) 설립에서 현재까지

당뇨병학회 호남지회는 대한당뇨병학회의 교육자 세미나로부터 그 뿌리가 났다. 이 지역 봉직의와 개원의들을 위한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를 1992년부터 호남지역 4개 대학을 중심으로 해마다 시행해오던 중 호남지역 지회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1996년 대한당뇨병학회 호남지회 창립을 위한 발기가 이루어졌다.

1996년 9월 20일 대한당뇨병학회 호남지회 창립총회가 거행되었고 초대회장으로 이태희 회원이 선출되었다. 초대 평의원은 정민영, 백홍선, 배학연, 조정구, 박태선, 송형근, 정동진 등 1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무, 교육, 연구, 재무, 학술 부문으로 나누어 부장 및 위원을 선정하였다.

대한당뇨병학회 호남지회는 1997년부터 해마다 춘계에 당뇨병 학술대회 및 총회를 개최하여 2008년까지 11회의 총회를 개최하였다. 추계에는 이전부터 시행해오던 교육자 세미나를 좀 더 세분화시켜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및 영양사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2007년까지 16차례가 개최되었으며 참여 인원도 약 150여명에 이르렀다.

창립일로부터 2000년까지 이태희 회원이 회장직을 수행하였고 2001년 제6차 호남지회 총회에서 2대 회장으로 정민영 회원이 선출되어 2001년~2004년 회장직을 맡았

다. 2005년 제10차 호남지회 총회에서 3대 회장으로 백홍선 회원이 선출되었으며 2006년까지 회장직을 수행하였다. 2007년 제11차 호남지회 총회에서 배학연 회원이 4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2008년 현재 활동 중이다.

1997년 17명이던 평의원은 현재 2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총무부를 비롯한 6개의 부처로 나뉘어 지회 사업을 진행 중이다.

2) 구성목적

호남지회의 구성목적은 호남지역에서 당뇨병에 관한 학술연구와 지식보급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급속히 증가하는 당뇨병에 대한 연구, 교육, 진료 등의 표준화 작업 및 발전이 필요한 가운데 구성된 호남지회는 본 지역에서의 당뇨병관련 사업, 교육, 홍보, 연구 등에 최선의 역할을 다한다.

3) 사업

(1) 당뇨병 학술대회 개최

	일 시	장 소
제1차 호남지회 학술대회	1996년 9월 20일	전남대학교병원
제2차 호남지회 학술대회	1997년 3월 29일	전남대학교병원
제3차 호남지회 학술대회	1998년 3월 28일	광주신양파크호텔

	일 시	장 소
제4차 호남지회 학술대회	1999년 3월 27일	광주신양파크호텔
제5차 호남지회 학술대회	2000년 3월 25일	광주무등파크호텔
제6차 호남지회 학술대회	2001년 3월 24일	광주무등파크호텔
제7차 호남지회 학술대회	2002년 3월 23일	광주무등파크호텔
제8차 호남지회 학술대회	2003년 3월 22일	광주무등파크호텔
제9차 호남지회 학술대회	2004년 3월 27일	광주무등파크호텔
제10차 호남지회 학술대회	2005년 3월 26일	광주무등파크호텔
제11차 호남지회 학술대회	2007년 4월 7일	광주 프라도 호텔
제12차 호남지회 학술대회	2008년 3월 22일	광주 5.18 기념회관

(2)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 개최

	일 시	장 소
제1차 교육자 세미나	1992년 9월 26일	전남대학교병원
제2차 교육자 세미나	1993년 9월 25일	전남대학교병원
제3차 교육자 세미나	1994년 9월 24일	전남대학교병원
제4차 교육자 세미나	1995년 9월 23일	전남대학교병원
제5차 교육자 세미나	1996년 9월 20일	전남대학교병원
제6차 교육자 세미나	1997년 9월 27일	전남대학교병원
제7차 교육자 세미나	1998년 9월 26일	광주신양파크호텔
제8차 교육자 세미나	1999년 9월 25일	전주코어호텔
제9차 교육자 세미나	2000년 9월 23일	전주코어호텔
제10차 교육자 세미나	2001년 9월 22일	전주코어호텔
제11차 교육자 세미나	2002년 9월 28일	광주신양파크호텔
제12차 교육자 세미나	2003년 9월 27일	광주신양파크호텔



2007년 제 11회 호남지역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및 영양사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2007년까지 16차례가 개최되었다.

	일 시	장 소
제13차 교육자 세미나	2004년 9월 25일	전주 소리문화의 전당
제14차 교육자 세미나	2005년 9월 24일	전주 소리문화의 전당
제15차 교육자 세미나	2006년 9월 23일	전주 소리문화의 전당
제16차 교육자 세미나	2007년 9월 29일	전주 소리문화의 전당

(3) 호남지역 SDM 시행

호남지역에서의 당뇨병환자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감에 따라 대한당뇨병학회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한 SDM 교육프로그램을 호남지역에서도 시행하였다. 이는 미국 International Diabetes Center (IDC)의 프로그램을 주축으로 교육위원회에서 발행한 한국판 SDM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2002년 4월 27일 호남지역 제1차 SDM이 개최되었고 이후 연 3~4차례 정기적으로 호남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되었다. 현재까지 SDM에 참여한 개원의 수는 약 800여명이며 간호사가 200여명, 영양사 80여명에 달한다.

4) 전망

당뇨병학회 호남지회는 호남지역에서의 당뇨병관리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이 지역에서의 역할이 매우 크다. 추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당뇨병 인구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리라는 것은 명확하며 이러한 증가



2002년 4월 호남지역 제1차 SDM이 개최되었다. 이후 연 3~4차례 정기적으로 호남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되어 현재까지 약 800여명의 개원의, 200여명의 간호사, 80여명의 영양사가 참여하였다.

된 수요는 호남지역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대한당뇨병학회 호남지회의 역할 및 규모는 더욱 늘어나리라고 사료되며 앞으로도 더욱 체계적인 교육과 당뇨병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힘을 쏟을 것이다.

〈작성 : 호남지회 회장 배학연, 총무 김상용〉

3. 충청지회

1) 설립에서 현재까지

대한당뇨병학회 충청지회는 2001년 3월, 지역사회의 당뇨병 연구와 교육을 위하여 대한당뇨병학회 회원 중에 대전, 충남, 충북 지역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를 주축으로 설립하였으며, 창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충남의대의 김영건 회장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영양사의 분과별 부회장과 이사 및 회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설립 이후 매년 당뇨병 심포지엄, 당뇨캠프, 당뇨인 걷기대회,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 및 당뇨병 공개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2008년 현재도 김영건 회장 외 분과별 부회장 및 임원진을 중심으로 각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 구성목적

충청지회는 당뇨병 교육자들이 급증하는 당뇨인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여 이와 관련된 의견 수렴 및 각종 활동을 하고 있다. 충청지회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를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지역의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당뇨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당뇨병 관련 문제에 대하여 정보교환과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3) 사업

(1) 춘계 심포지엄

2001년 창립 이래 매년 3월 당뇨병 교육자와 개원의를 대상으로 당뇨병과 관련된 한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 분야의 선생님을 모시고 토의를 하고 있다. 2008년 3월 17일에는 '당뇨병 치료의 최신지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8회 춘계 심포지엄을 충남대병원에서 개최하였다.

	일 시	장 소
충청지회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심포지엄 - 당뇨병관리의 최신지견	2001년 3월 17일	유성리베라호텔
창립 1주년 기념 연수강좌 -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	2002년 3월 16일	유성리베라호텔
제3회 춘계 심포지엄 - 당뇨병의 올바른 관리	2003년 3월 15일	충남대학병원
제4회 춘계 심포지엄 - 당뇨병성 신경병증	2004년 3월 20일	대덕과학문화회관
제5회 춘계 심포지엄 - 당뇨병 만성합병증의 예방과 치료	2005년 3월 19일	목원대학교 대덕과학문화회관
제6회 춘계 심포지엄 - 당뇨병 치료의 최신지견	2006년 3월 18일	충남대학병원
제7회 춘계 심포지엄 - 당뇨병 치료의 최신지견	2007년 3월 22일	충남대학병원
제8회 춘계 심포지엄 - 당뇨병의 신경병증과 족부질환	2008년 3월 17일	충남대학병원



충청지회는 2001년 3월 지역사회의 당뇨병 연구와 교육을 위하여 대한당뇨병학회 회원 중에 대전, 충남, 충북 지역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를 주축으로 설립하였다.

(2)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

매년 9월에 당뇨병 교육자에게 새로운 치료법 등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당뇨인의 교육과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다.

	일 시	장 소
제1회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 - 당뇨병의 합병증 관리	2001년 12월 1일	충남대학병원
제2회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 - 대사증후군의 당뇨병 관리와 흔한 내분비질환의 최신치료	2002년 12월 7일	충남대학병원
제3회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 - 노인 및 임신성 당뇨병의 관리	2003년 9월 6일	유성관광호텔
제4회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 - 생활습관과 당뇨병	2004년 10월 9일	을지대학병원
제5회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 - 당뇨병과 대사증후군	2005년 9월 24일	충남대학병원
제6회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 - 당뇨병 치료의 update	2006년 9월 23일	을지대학병원

(3) SDM

당뇨병의 진료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 대상 교육프로그램인 SDM을 대한당뇨병학회와 협력하여 2004년부터 소도시 중심으로 연3~4회 실시하고 있다.



충청지회는 당뇨캠프를 2005년 8월 시작하여 매년 8월말에 2박 3일 일정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제1회 당뇨캠프 기념촬영.



충청지회는 2001년부터 매년 10월 당뇨인과 가족, 일반인이 참가하는 당뇨인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전, 청주, 천안, 보령에서 분산해서 개최하며 해마다 60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순차	일시	장소
1차	2002년 4월 27일	홍성
2차	2002년 7월 13일	청주 충북대학교 병원 소강당
3차	2003년 2월 22일	천안 순천향대학 병원
4차	2003년 7월 5일	보령 한화콘도 세미나룸
5차	2003년 10월 11일	옥천 충북 옥천 명가 웨딩홀
7차	2005년 12월 17일	대전 을지대학병원
9차	2002년 2월 26일	공주 공주시문예회관 소공연장
10차	2005년 8월 20일	대전 건양대학병원 본관 11층 강당
11차	2005년 12월 10일	대전 보훈병원 강당
12차	2006년 7월 1일	청주 충북대학병원 보운홀
13차	2007년 4월 28일	대전 충남대학병원 보운홀
14차	2007년 7월 14일	천안 순천향병원 연구관 2층 강당
15차	2007년 10월 13일	서산시 문화원 강당
16차	2008년 4월 12일	대전 건양대학병원 11층 대강당
17차	2008년 7월 5일	충남 보령 한화콘도

(4) 당뇨캠프

당뇨인과 그 가족들이 직접 체험하고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당뇨캠프를 2005년 8월 제1회를 시작하여 매년 8월말에 2박 3일 일정으로 시행하고 있다. 2008년 8월 제4회 당뇨캠프를 실시하였다.

(5) 당뇨인 걷기대회

2001년부터 매년 10월 당뇨인과 가족, 일반인이 참가

하는 당뇨인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걷기대회에서는 운동 전후 혈당을 측정하고, 환자들이 진료실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궁금증을 의료인과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 해결하고 친목을 도모한다. 대전, 청주, 천안, 보령에서 분산해서 개최하며 해마다 60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6) 당뇨병주간 공개강좌

일반인을 대상으로 당뇨병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조기 진단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당뇨병 공개강좌를 매년 11월 당뇨병주간에 대전, 청주, 천안에서 분산하여 개최하고 있다.

4) 전망

대한당뇨병학회 충청지회는 그간 지역사회의 당뇨병 연구와 교육에 미력하나마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다져온 지회 회원들의 노력과 역량을 밀착 삼아 좀더 활동적인 지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 내의 당뇨병 연구 및 교육자 모임을 활성화하고, 현재 추진중인 행사를 대한당뇨병학회 분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진행할 것이며 지역사회의 당뇨인과 교육자들의 중심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임원

△ 회장 : 김영건(충남의대)

△ 부회장 : 의사 - 공성수(충북의대), 김상진(단국의대), 이기상(새서울내과의원)

간호사 - 여경오(대전성모병원)

영양사 - 여인섭(대전을지대의대)

△ 감사: 박근용 (건양대학교)

△ 총무: 김현진(을지대학교)

△ 부총무 : 김여주(순천향의대), 임동미(건양의대), 장이선 (가톨릭의대), 김옥란(을지의대), 임봉주(충남의대), 옥경아(대전성모병원)

〈작성 : 충남지회 회장 김영건, 총무 김현진, 부총무 임동미〉

4. 경인지회

1) 설립에서 현재까지

당뇨병의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당뇨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당뇨병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당뇨병을 관리하는 수준에 차이가 있어 지역적 특성을 가진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활성화해 가는 추세이다.

수도권이라 할 수 있는 경기인천지역에서도 당뇨병 교육을 위한 지역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2001년 경기인천 지역의 당뇨병 전문의가 모여 발기인 모임을 가진 후 수 차례의 모임을 거쳐 경기인천지회(경인지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이 모임에는 경인지역의 의사, 영양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참여하였다. 발기인 모임에서 명칭을 경인지회로 결정하고 세 개의 분회로 나누기로 하였다. 세 개의 분회는 경기북부(의정부, 동두천, 구리, 일산 지역), 경기남부(수원, 성남, 분당, 평촌, 안산 지역), 경기서부(인천, 부천 지역)이다.

경인지회는 2002년 3월 30일 창립총회와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당뇨병 관리의 최신지견'이라는 내용으로 심포지엄이 진행되었고, 창립총회에서 경인지회의 정관 발표와 회원들의 인준이 있었다. 회장은 가톨릭의대 부천성가병원의 강성구 회원이,



2002년 5월 25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열린 경인지역 제1차 SDM. 현재까지 SDM에 참여한 개원의 수는 1000명이 넘는다.

부회장으로서는 한림의대 성심병원의 박성우 회원이 선임되었다. 초대 임원으로 손현식, 김현만, 강문호, 이석인, 정상수, 김용성, 김성래, 원영준, 송기호, 조용욱, 조남한, 유순집 회원이 임직하였다. 이후 2004년부터 박성우 회원이 2대 회장직을 역임하였으며, 2006년부터 김용성 회원이 3대 회장직을 맡고 있다.

2) 구성목적

경기인천지역의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당뇨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당뇨병 관련 예방사업과 역학사업, 당뇨병 클리닉의 운영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정보 교환과 연구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경인지회가 설립되었다

3) 사업

경인지회는 2002년 창립 심포지엄, SDM, 개원의 연수 강좌, 임원진 세미나 등을 개최한 이후 해마다 크고 작은 워크숍 및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2003년과 2004년에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전체 경인지역의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매년 춘계 워크숍과 추계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2002년 이후 매년 SDM을 경인 각 지역을 순회하며 열고 있다. 2002년 5월 25일 경인지역 제1차 SDM이

개최되었고 이후 매년 3~4차례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현재까지 SDM에 참여한 개원의 수는 1000명이 넘는다.

한편, 각 분회(경기북부, 경기남부, 경기서부) 별로 1년에 4~5차례 모임을 개최, 소규모 학술 토론 및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 분회 별로 공동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전체 경인지회의 공동 연구 또한 진행 중이다.

경인지회 역대 행사

	일 시	장 소
경인지회 창립총회 / 창립기념 심포지엄	2002년 3월 30일	아주대병원
개원의 연수강좌	2002년 8월 22일	길병원
2003년 춘계 대한당뇨병학회 경인지회 학술 심포지엄	2003년 3월 22일	신라호텔 영빈관
2003년 제1회 경인지회 당뇨병 교육자 추계 학술세미나	2003년 10월 25일	강북삼성병원
2004년 대한당뇨병학회 경인지회 워크숍	2004년 3월 20일	강남성모병원
2004년 대한당뇨병학회 경인지회 학술 세미나	2004년 4월 24일	강북삼성병원
2004년 제2회 당뇨병 교육자 춘계 학술 세미나	2004년 6월 19일	강북삼성병원
2005년 대한당뇨병학회 경인지회 인천부천지회 심포지엄	2005년 3월 12일	길병원



2002년 3월 창립한 경인지회는 경인지역에서의 역학 사업, 당뇨병 관련 연구 및 교육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 시	장 소
2005년 대한당뇨병학회 경인지회 추계 학술 세미나	2005년 11월 26일	한림대 성심병원
2006년 대한당뇨병학회 경인지회 춘계 학술 세미나	2006년 4월 1일	관동의대 명지병원
2006년 대한당뇨병학회 경인지회 추계 학술 세미나	2006년 11월 18일	강남성모병원
2007년 대한당뇨병학회 경인지회 춘계 워크숍	2007년 6월 2일	영종도 하얏트호텔
2007년 대한당뇨병학회 경인지회 추계 학술 세미나	2007년 12월 1일	강남성모병원
2008년 대한당뇨병학회 경인지회 춘계 워크숍	2008년 4월 26일	영종도 하얏트호텔

SDM

	일 시	참석인원	장 소
1차	2002년 5월 25일	28	의정부성모병원
2차	2002년 7월 6일	59	한림의대성심병원
3차	2003년 3월 8일	64	일산백병원
4차	2003년 5월 17일	36	부천
5차	2003년 7월 12일	44	분당
6차	2003년 10월 11일	60	아주대병원
7차	2003년 11월 15일	89	중앙길병원
8차	2004년 2월 21일	72	평촌성심병원
9차	2004년 3월 27일	51	의정부성모병원

	일 시	참석인원	장 소
10차	2004년 5월 15일	61	고대안산
11차	2004년 7월 3일	45	평택
12차	2004년 9월 18일	54	2004년 5차 일산
13차	2004년 12월 11일	47	성가병원
14차	2005년 4월 23일	47	광명성애병원
15차	2005년 9월 24일		분당제생병원
16차	2006년 2월 25일		이천 미란다호텔
17차	2007년 3월 24일	95	인하대학병원
18차	2007년 6월 16일	41	분당차병원
19차	2007년 9월 15일	97	아주대병원
20차	2007년 10월 27일	41	부천순천향병원
21차	2008년 4월 5일	42	일산병원

4) 전망

향후 경인지회는 경인지역에서의 역학 사업, 당뇨병 관련 연구 및 교육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회원 간의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역대 임원

활동시기	명 단
2002년	회장 : 강성구(가톨릭의대)
	부회장 : 박성우(한림의대)
	총무 : 김용성(인하의대)

활동시기	명 단
~2003년	지역분회장 : 경기북부지역 - 손현식(가톨릭의대) 경기남부지역 - 김현만(아주의대) 경기서부지역 - 강문호(가천의대)
2004 ~2006년	명예회장 : 강성구(가톨릭의대) 회장 : 박성우(한림의대) 부회장 : 강문호(가천의대) 총무 : 김용성(인하의대) 지역분회장 : 경기북부지역 - 손현식(가톨릭의대) 경기남부지역 - 이관우(아주의대) 경기서부지역 - 김용성(인하의대)
2007년 ~현재	명예회장 : 강성구(가톨릭의대) 회장 : 김용성(인하의대) 부회장 : 조용욱(포천중문의대), 장학철(서울의대) 총무 : 이관우(아주의대), 김혜진(아주의대) 지역분회장 : 경기북부지역 - 손현식(가톨릭의대) 경기남부지역 - 이관우(아주의대) 경기서부지역 - 유순집(가톨릭의대)

〈작성 : 경인지회 회장 김용성, 총무 이관우, 김혜진〉